

# 슬픔 보다 더 슬픈 이야기

각본 / 원태연 · 최은하

감독 / 원태연

## # 타이틀 시퀀스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크레딧 자막이 올라간다.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클로즈업이나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디졸브 되어 표현된다.

- 음표가 그려져 있는 오선지의 클로즈 업
  - 만년필에 빨려 들어가는 잉크
  - 오선지의 제목 란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고 쓰는 가녀린 여자의 손
  - 음표 밑에 써지는 가사들
  - 여자의 눈에 가득 고여 있던 눈물이 보이다 떨어지면  
(F.0)  
(F.1)
  - 가사의 중간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며 서서히 번져가는 가사
  - 노트북의 자판을 누르는 반지가( 결혼반지 느낌) 끼워진 남자의 손
  - 노트북에 써지는 “사랑은.....
  - 반지를 감미롭게 어루만지는 손
  - “아이디 인어 공주” 라고 쓰여지는 노트북의 화면
- 
-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는 남자의 얼굴
  - 남자의 시선으로 보이는 하얀 약통.(어지러운 이미지)
  - 컵에 가득 차는 물과 조금씩 올라오는 기포들
  - 약을 입에 넣는 남자
  - 반지가 끼워지지 않은 또 다른 남자의 손이 인스턴트 커피를 탄다
  - 웨딩 샵에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나란히 서있는 남자와 여자

(Off Sound) 매니저: 이쪽 보세요. 예비 신랑 신부님..

- 카메라 쪽을 보고 웃는 남자와 여자  
찰칵!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변한다.

(F.0)

(F.1)

타이틀 “ 슬픔 보다 더 슬픈 이야기 ”

## 1. 녹음실 (낮)

녹음실의 전경이 보여 지며, 안에서 슬픈 표정으로 노래하는 가수A.

녹음실 밖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을 지켜보는 임 사장과 엔지니어

노래를 부르던 가수A,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가사가 쓰인 종이를 잡아채면서

가수A (불만스런 표정으로 앞을 보며) 잠깐 나갈게.

부스의 유리를 통해 보여 지는 헤드폰을 벗고 녹음실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가수A  
카메라의 포커스가 유리로 넘어가면, 유리에 비춰지는 임 사장의 상기된 모습

가수A (가사 적힌 종이를 내밀며) 형은 이 가사가 슬퍼?  
봐봐... 인트로부터 이상하잖아. '그대 떠난 그 날부터 난  
불치병에 걸렸어... 내 심장의 흐느낌은 꺼져가는 촛불 같아...'  
이게 무슨 종합병원 주제가야?  
싸비는 더 웃기잖아?  
' 내 눈물이 진주가 되어 그대 목에 걸릴 수만 있다면...'

임 사장 (달래는 듯) 왜? 난 좋은데... 그럼 진주를 탄 거로 바꿀까? 다이아  
아 어때?

가수A (어이없다는 듯 임 사장보고)

임사장 야, 이 가사 조해경이 쓴 거야. 개가 요즘 작사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거 알지? 내가 이거 받으려고 얼마나 뺨이 친 줄 아냐?  
이거 원래 이승철 줄라고 만들었다는데 내가 곡비 따블로 주고  
뺏어 온 거라니까?

가수A (못마땅한) 형! 나 이번이 7집이거든?  
요즘 나오는 가수 애들 중에 어릴 때 나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는 애들이 태반이야. 나 이거 쪽팔려서 방송 못해.

임사장 그럼 어떡하냐? 다음 주부터 방송 줄줄이 잡아놨는데...

잠시 침묵의 모습이 와이드한 앵글로 보여지며..

가수A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형, 스케줄 다 미루자.  
이번 따블 망하면 나 진짜 은퇴해야 돼. 그럼 형도 이 바닥  
떠야 되는 거 알지?

심각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는 임사장.

임사장의 초조함을 보여주듯 빠르게 빨려가는 담배.

임사장 돌아버리겠네... 이제 와서 가사를 누구한테 맡기냐구...(한숨)

가수A 형, 오늘 녹음 접고 바람이나 좀 쐬고 오자. (나가는)

임사장 (착잡한 표정으로 따라 나가는)

이들을 보는 엔지니어의 시선이 움직이듯 카메라 움직이면, 닫히는 녹음실의 문.

## 2. 차안 (오후)

화려한 도심을 배경으로 도로를 달리는 가수A의 차의 모습에서 카메라가 서서히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며.

뒷좌석에 임사장과 가수A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임사장 (결심한 듯) 그래! 까짓 거, 타이틀 판 거로 바꾸자!  
'애상' 으로 갈까? 아니지, '당신의 모습' 이 낫나?  
가수A 둘 다 약해... 멜로디는 아까 그 곡이 제일 좋은데 가사가  
꽂이라서... 형, 그러지 말고 이번 판 일단 뒤로 미루자

열불이 나서 답답한 듯 자신 쪽의 창을 여는 임사장

임사장 야,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데 접어?  
유직비디오 감독 정했고, 케이블 시간대 다 사냈는데,  
형이 유통사한테 시달리는 거 보고 싶어?  
가수A 그렇다고 이렇게 판 냈다간 형이랑 나, 다 망한다니까?  
임사장 그냥 밀어붙이자~ 러브레터랑 인기가요 연짱으로 나가고,  
모든 예능프로 다 하자고 도배를 하자고  
너 이효리랑 혜밀리가 뒀다 고정으로 해 볼래?  
내가 그 감독 잘 알거 든!  
가수A 형! 난 노래로 승부할 거거든? 예능은 안 나가.  
임사장 (답답하다) 아, 그럼 어떡하냐... 좋은 가사가 없는데...  
아, 글 잘 쓰던 새끼들 다 어디 간 거야? 에이! (열 받는데)

눈 밀리를 통해 힐끔 뒷좌석을 보던 로드 매니저.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지 하면

로드 매니저 (뒤를 돌아보며) 저어.. 형님..  
임사장 (짜증스레) 왜?  
로드 매니저 (운전하며) 죽~이는 노래 하나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임사장 (별 기대 안하고) 니가 듣는 귀가 있냐?  
곡 안 좋으면 니가 죽는다.  
로드 매니저 아니예요, 진짜 죽어요. 예술이에요!!  
임사장 (심드렁) 알았어. 틀어 놔.

임사장의 얼굴에서 카메라 빠지면서 서서히 달히는 임사장의 자동차 창.

창밖을 통해 조금씩 들려오는 감미로운 음악의 전주

화려한 강남의 도로를 달리는 가수A의 차의 와이드한 샷이 보여진다.

슬픈 음성의 남자 보이스

(가사 내용은

나에겐 그런 사람 또 없다는 담백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사

멜로디와 보이스가 잘 어울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슬프다)

노래에 푹 빠져있던 가수A의 얼굴.

가수A (흥분해서) 야! 이거 누구 노래야? 타이틀 나온 거야?  
로드매니저 (운전을 하며) 아니요, 그냥 가이드만 있는데요,  
회사가 망해서 접었대요.  
가수A (임사장 보고) 형, 이거야! 가사와 곡이 대박이잖아!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니까?  
임사장 (역시 흥분) 오케이! 이거 가사 쓴 애한테 우리 것도 맡기면  
되잖아? (매니저에게) 야, 이거 작사 누가 했어?  
로드매니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임사장 (답답하다) 이 따블 만든 애는 알 거 아니야?  
제작자가 누구야?  
로드매니저 민철이 형이라고 고향 선뵙니다.  
임사장 민철이? 옛날에 갑식이 형 밑에서 운전하던 애?  
그래! 빨리 전화해 봐! 빨리!  
로드매니저 그 형, 다 정리하고 이 바닥 뺐는데요?  
임사장 (멈칫) 야 뭐하냐? 장사하냐?  
로드매니저 아니요, 청평에서 카페하는데요.  
임사장 청..(하다가 매니저 어깨를치며) 빨리 가, 청평! 야 임마, 씨!  
로드매니저 예!

빠르게 달러가는 가수A의 차의 뒷모습에서  
카메라 서서히 하늘쪽으로 올라가면 보여지는 전경.

### 3. 경기도 카페 (밤)

야외에 피워진 모닥불 주위로 둘러앉아있는 가수A와 임사장, 로드매니저.  
가수 A와 임사장의 사이로 보여지는 부인과 아이를 데려오는 몸집이 커다란 민철  
카메라를 받는 로드 매니저가 가수A와 사진을 찍어준다.  
다정히 웃어주는 가수A.  
찰칵! 촬영이 끝나자

민철 저어 그리고 여기 싸인 좀...

스케치북에 싸인을 해주는 가수A.  
가수A의 사인을 부인에게 건네면 웃으며 목례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인  
가수A의 시선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부인과 미소 짓는 아이  
민철이 임사장에게 씨디를 주면

임사장 (어깨를 두드리며) 야 너 많이 삭았다..어떻게 지낸거야?

민철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회사 망하고 저두 다른일 찾았어요  
임사장               이 바닥이 좀 세지! 건 그렇고 이 노래 제목이 뭐야?  
민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인데요...  
임사장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음.. 거 제목 한 번 특이하네...  
                          암튼, 가사가 예술이야... 이 거 누가 썼냐?  
민철                   그게요... 크림씨라고 있는데요...  
임사장               크림? 외국 애야? 웬 외국애가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  
민철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요... KBC 라디오에 강철규  
                          PD라고 있었죠?  
임사장               강철규? ... 아아~ 강피디! (생각날 듯) 그 친구가 하던 그  
                          프로가 이름이 뭐였지?  
민철                   사랑에 빠진 미운 오리들..  
임사장               (생각난듯) 아~~ 그 사람 사빠미...케이?  
민철                   강 PD가 무지하게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크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임사장               아, 그럼 강 PD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민철                   그게... (깊은 한숨) ... 아마 죽었을 거예요...

모두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다가

임사장               (놀라며) 죽어?...언제..?  
민철                   크림 결혼시켜주고 바로 미국 갔으니까...  
                          얼마 못 살았을 꺼예요  
가수A               (더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시켜주다니..!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였다면서요?  
민철                   (하늘을 보며) 장난 아니었죠.. 방송국에서 유명했었는데..  
                          케이 하고 크림...  
가수A               아니, 사랑하는 여잘 왜 결혼시켜줘요! 도대체 댜 소리야 이게!  
민철                   저도 보지 못했으면 안 믿었을 얘기예요  
임사장               야, 야.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일 있었냐..얘기 좀 해봐  
민철                   얘기가 좀 긴데...  
임사장               아, 길면 어때? 빨리 좀 해 봐. 다들 앓아.  
                          (앓고 나서 둘러보는) 근데...이거 무슨 연기가?..

장작불 위에서 타오르는 연기가 하늘높이 올라간다.

카메라 연기를 따라가듯 올라가면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 위로 웅실웅실 퍼져나가는 연기가 서서히 아름답게 변해 간다

#### 4. 창고 뒤 (낮)

S#3의 아름다운 연기와 디졸브 되어지면  
눈부신 햇살사이 사이로 담배연기가 흩어 퍼지며 카메라 서서히 내려가면  
담벼락에 기대 담배를 태우고 있는 여학생 크림의 모습이 보여진다  
햇살이 비추는 크림의 얼굴에  
여고생다운 싱그러움과 여인 같은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크림의 촉촉한 입술과 눈망울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다시 담배를 입에 물 때  
크림의 시선으로 보여지듯 축구공이 발 밑으로 굴러온다  
크림, 고개를 들면..  
축구공을 따라 뛰어 들어오는 케이  
헉..헉..숨을 고르고 뛰어 들어오다가 크림을 보고 심장이 탁! 멎는 듯한 표정으로  
크림을 바라 본다.  
모든 것이 정지 된 듯한 느낌의 케이와 크림의 풀샷에서 카메라 서서히 빠진다(고속 촬영)  
케이를 표정 없이 바라보는 크림의 얼굴

크림                   (케이를 보며) 담배 피는 거 처음 봐?

대답 없이 숨을 고르며 크림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케이  
화면가득 보이던 케이에서 카메라 이동하면, 뒤편에서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는  
선생님이 보인다  
선생님을 보고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케이 입에 물려주는 크림  
갑자기 입에 담배가 물려져 당황하는 케이  
선생님의 어깨 사이로 보이는 케이와 크림의 모습  
선생님, 성난 눈으로 케이와 크림을 번갈아 바라 본다  
어느새 다소곳한 여고생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크림

선생님                   (케이의 입에서 담배를 빼앗으며) 이 상노무 새끼가 뒤질라구..

컷투

민철소리               케이가 처음 크림을 봤을 때 눈에서 불이 번쩍 했데요  
                              뭐라 그러더라..  
                              망치 같은 걸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그랬나? 제대로..

부감으로 앞드려 뺨쳐를 하고 몽둥이를 맞고 있는 케이의 모습에서 카메라 내려가면  
쌍욕을 하며 열심히 케이의 허벅지를 때리는 선생님의 모습  
허벅지를 여러번 강타하는 몽둥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벅지를 맞으면서도 크림을 바라보고 있는 케이  
표정 없이 케이를 바라보는 크림

선생님                   (힘이 많이 빠진 듯) 일어나 새끼야!

케이가 일어나면 케이의 귀를 잡고 끌고 가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카메라

선생님            겁 대가리 상실한 노무 새끼!  
                      (크림을 보며) 넌 뭐야?

사슴 같은 눈망울로 눈물을 흘리는 크림

선생님            이 쌍노무 새끼! 따라와 쉼끼야!

선생님에게 귀를 잡히고 끌려가면서도 계속 크림을 바라보고 있는 케이  
언제 울었냐는 듯 장난 기 가득한 눈으로 웃으며 케이를 바라보는 크림

민철 소리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사랑하게 됐데요  
                      단 한마디도 필요 없이..  
                      아무리 그래도 뭐 인사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뭐라 그랬더라..

이들의 모습에서 카메라 올라가면 하늘에 몽실몽실 떠있는 구름들이  
조금은 빠르게 움직이며

케이 소리        사랑하는데 말이 필요하다면  
                      병어리는 어떻게 사랑 할 수 있겠니...

## 5. 케이 집 (낮)

어른들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외롭고, 쓸쓸하게 보이는  
40평 일반 아파트의 내부가 보여 진다  
케이집의 다양한 소품들이 보여지고  
거실 소파에 엮드려 허벅지를 내 놓고 있는 케이와  
케이의 허벅지에 연고를 발라주는 크림의 손

크림                (연고를 빨꺽게 부은 허벅지에 골고루 발라주며)  
                      이렇게 큰집에 혼자 사는 거 낭비 아니니? 내가 같이 살아줄까?

고개를 돌려 크림을 바라보는 케이  
멍한 얼굴의 케이에게 키스를 하는 크림  
당황하며 크림의 입술을 받아들이던 케이  
행복한 꿈을 꾸듯 눈을 감는다  
(F.O)

## 6. 거실 (스페셜 씬)

(F.1)

지금부터는 화면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정상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사운드는 화면이 정상적이었을 때만 들리고  
미디어 템포의 자극적인 전자음악과 함께 케이의 나레이션이 들립니다

- 현관 앞 신발장 안 가득 자신의 신발들로 채워 넣는 크림
- 케이 신발장 문을 열어보고는 아연질색..
-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케이 앞에 킁킁거리며 박스를 들고 오는 크림  
박스를 열어 똑같은 모양의 예쁜 찻잔과 그릇들을 펼쳐 보이며 신이 난 크림
- 학교 방송실에서 원고를 쓰고 있는 크림, 케이가 두 개의 컵라면을 들고 들어온다
- 부엌 찬장에 들어있는 옛 그릇들을 박스에 던져버리는 크림  
보고 있던 케이도 찬장에 그릇들을 박스에 던져버리면  
짹!짹그렁!짹!!!!!!!그릇들이 박살이 난다, 신나게 박살내는 케이와 크림
- (낮)케이가 집에 들어오면 사방에 널려있는 크림의 물건  
현관부터 가디건, 수건, 양말, 식탁위의 빈 그릇들을 치우다  
화가 난 표정으로 크림 방문을 열면  
속옷 차림의 크림이 소리치며 놀라고, 케이도 놀라 소리치며 문을 닫는다
- (낮)대학 입시 면접장, 복도에 엄마와 함께인 다른 남자아이들과 달리  
빨간색 더폴코트를 입고 긴 생머리를 한 크림의 손을 잡고 있는 케이  
엄마들과 남학생들 사이에서 크림이 튀어보인다
- (밤)천둥 번개가 치는 밤, 놀란 얼굴로 방에서 뛰어나와  
잠자는 케이의 침대 속으로 파고드는 크림  
케이 놀라 일어나 도망치듯 베개를 들고 방에서 나간다  
베개를 문으로 집어 던지는 크림

**사랑은 드라이아이스처럼 차갑고도 뜨거웠고 크림은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난 사랑스러운 크림을 사랑해 줄 수가 없었다**

- (밤)부엌, 일본 룩커 같은 복장과 헤어스타일의 남자가 비슷한 차림의 크림 옆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일본 룩커 같은 복장의 남자가 크림의 입에 반찬을 넣어주면  
케이를 보며 받아먹는 크림, 모른척하며 밥을 먹는 케이
- (낮)현관, 케이가 현관문을 열면 일본 룩커 같은 분위기의 남자가 인사를 하고  
크림이 가죽잠바를 입으며 현관으로 나오면 룩커남이 크림의 어깨를 감싸고 나간다.  
달히는 현관문 사이로 케이를 바라보는 크림

**크림은 어느 날 일본 룩커 같은 분위기의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난 크림이 일본 룩커 같은 분위기의 남자와 함께한 28일 동안**

**얼음처럼 꽁꽁 얼어 지냈다**

- (낮)혼자 거실 벽에 걸린 다트를 하고 있는 케이
- (밤)부엌, 혼자 라면을 먹는 케이. 짜증난 얼굴의 크림이 들어와 손가락에 낀 해골반지와 목걸이를 벗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케이의 라면 그릇을 가운데로 당겨놓고 라면을 먹는다. 크림을 보며 웃는 케이, 다정하게 번갈아 라면을 먹는 두 사람

**28일후 일본 홋카이도 같은 남자와 크림의 사랑은 끝났다**

**그래서 난 다시 사랑스럽지만 사랑할 수 없는 크림과 단 둘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

- (낮)방에서 통장을 들고 나와 식탁위에 내려놓는 케이  
크림이 통장을 열어 숫자를 세어보다 환호를 지른다
- (낮)자동차 전시장에서 멋진 차들을 타보는 케이와 크림 짜증스러움이 역역한 딜러
- (저녁)..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소리를 지르며 신이나 떠드는 크림과  
긴장한 표정으로 장난치며 핸들을 만지는 크림의 손을 핸들에서 떼어내는 케이
- (밤)밤바다를 향해 소리 지르는 케이와 크림  
팡!팡! 케이와 날리는 폭죽이 하늘에서 터진다. 미친 듯 소리를 지르는 크림과 케이  
바닷가에서 건배하며 술을 마시는 케이와 크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난 크림을 사랑한다**

**하지만 난 크림이 혼자 남겨지길 바라지 않는다**

**나는 혼자 남겨져 보았기에**

**그것은 세상 끝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외로움의 맛이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밤)케이를 부축하며 걷던 크림이 모텔 간판을 바라본다. 모텔로 들어가는 크림
- (아침)아침 해가 눈부신 듯 눈을 뜨는 케이  
주위를 둘러보면 옆에서 크림이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모텔 안  
기겁을 하며 일어나는 케이, 팬티 차림이다  
부스스 일어나는 크림에게 화를 내며 옷을 입다 넘어지는 케이,  
화난 얼굴로 케이를 보는 크림

**나는 사랑스러운 크림을 사랑해 줄 수가 없었기에**

**크림은 꽃을 사랑보다 존중한다는 플로리스트와 두 번째 사랑에 빠졌다**

- (낮)식탁 위에 꽃이 놓여져 있고 앉아있는 크림의 뒤에 서서 크림의 손을 잡고 꽃꽂이를 가르쳐주며 차분한 미소를 짓는 남자.  
케이가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며 크림을 보면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 (밤)술을 잔뜩 마신 플로리스트를 데리고 와서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는 크림  
시간경과, 크림의 비명 소리에 방에서 나오는 케이, 크림방에서 쫓겨 나오는 플로리스트  
플로리스트에게 베개를 집어던지는 크림.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플로리스트를 케이와 불

잡으면 현관에 둔 꽃꽂이 꽃을 뽑아 플로리스트를 패는 크림

**크림의 두 번째 사랑이 끝났을 때 난 알 수 있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낮)현관. 나가려는 케이를 붙잡고 케이가 입고 있는 촌스런 스웨터를 벗기고  
자기가 입고 있던 빨간색 스웨터를 벗어 입히는 크림의 만족스런 얼굴

**그리고 내가 하는 사랑은**

**화가의 꿈을 가진 누군가가 모나리자를 바라보듯**

**내 것 일수는 없지만 내 것이 아니더라도**

**그 아름다움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바라보는 사랑이란 것을**

-(낮)면회실. 군복 입은 케이가 안으로 뛰어 들어오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돌아보는 크림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미소

-(낮) 학교 방송실에서 마이크 앞에서 멘트를 하고 있는 케이와

옆에서 열심히 원고를 쓰는 크림, 케이에게 원고를 건 내면 케이가 그 원고를 읽는다

-(낮)변기에서 불일을 보던 케이가 소리를 지르면 크림이

화장실 문을 열고 휴지를 건네준다

-(낮)케이의 방. 양복을 입고 있는 케이, 벅타이를 매주는 크림

벅타이가 이상하게 매어치고 크림이 장난기 어린 얼굴로 벅타이를 당겨

케이를 끌고다닌다, 말처럼 끌려다니면서도 깔깔깔 행복한 케이와 크림

**크림과 난 그렇게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남매처럼**

**서로의 하루하루 속에 살아가며**

**나는 라디오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었고 크림은 작사가가 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붙어 다니는 우리를 사람들은 케이와 크림이라고 불렀다**

-(낮)사원증을 목에 걸고 방송국에 들어가는 케이

-녹음실에서 작업 중인 크림. 음료수를 사온 케이와 인사하는 녹음실 사람들

## 7. 방송 대기실 (낮)

젊은 민철이 여자 작가 세 명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김밥을 올려놓고

나무젓가락을 까서 작가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고 있다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게 세심하게(냅킨을 깔고, 젓가락을 일직선으로 맞추는 등등)

준비하고 있다

한쪽 소파에 앉아있는 김사장과 켓걸 (긴 꼬리가 달린 검은 가죽 옷을 입고 있다)

작가1 (즐거운 듯) 잘 먹을께요 김 사장님  
김사장 그딴게 밥 되겠쓰.. 허긴 시간들이 워낙에 없으께  
머리 쓰시는 양반들은 끼니를 잘 챙겨야 쓰는 건디  
꼬오꼭 씹어드시오..언쳐!  
(민철에게) 아야, 김밥에 겨란이랑 소고기랑 먹싱했냐?  
민철 네 사장님  
김사장 뜨신 국물 챙겨왔고?  
민철 (봉지에서 오뎅을 꺼내며) 네 사장님  
김사장 뜨신 국물이랑 김밥이랑 런칭 해서 꼬옥 꼭 씹어 잡쉐  
작가2 (켓 걸을 보며) 준비하신다던 신인이신가 봐요  
김사장 잉? (옹거니! 하는) 응, 거시기 뭐, 나가 아무래도 요번에 사교  
한 번 칠 거 같허... (켓 걸 가리키며) 일단 애가 세수대야가  
쫼잖어? 뭐 하냐 얼른 인사 안올리고  
케비에쓰에서 제일 잘나가는 작가님들이시다  
켓걸 (오바로) 켓 걸이예요  
항상 신인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김사장 니 지금 신인이여.. 뭘 소리하냐?  
작가3 이름이 뭐예요?  
김사장 (골치아픈 표정) 케츠으..괘이 알죠잉 괘이..  
이번 컨셉이여 괘이 소녀  
켓걸 (미스코리아처럼 부자연스럽게 활짝 웃으며) 켓걸입니다  
김사장 앗튼 저 모지방에 노래는 완전  
빅마마여... 음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당께...  
작가들 (믿지 않는 듯 한 표정)  
김사장 거기다 재가 또 집안이 겁나게 좋아. 시골에 과수원이 한 백만 평  
있당께. 나가 명절 때 사과 한 짝 씹 짜약~ 돌릴 것이여.  
그라고, 결정적으로... (자기 머리 가리키며) 머리가 장난  
아니여. 서울대학교 땡기잖어~  
작가2 정말요?  
김사장 그렇당께~ 서울대학교 방송 연예과 1학년이여.  
민철 사장님,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 예술 대학입니다.  
김사장 (멈칫하고 민철 노려보는) 아야, 넌 누구 편이냐?  
민철 요즘 학벌 위조하면 큰일 납니다, 사장님.  
김사장 넌 그렇게 강직하면 짬새가 되지 뭣허러 매니저를 하나?  
그러, 나가 가방끈이 짧아서 실수 좀 혀다. 신고허라.  
민철 죄송합니다. (뒤로 빠지고)  
작가들 (웃으면)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는 작가들  
대기실 복도에서 케이이 걸어오고  
젊은 가수A와 임사장이 케이에게 인사 한다

임사장 (씨디를 건내며)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에 대학가요제 대상받은 친구데 이번에 제가 제작 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케이 아아! 노래 들어 봤어요, 좋던데요.  
가수A (수줍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꾸벅 인사하는)  
임사장 (케이에게 달라붙으며) 식사한번 하셔야죠? 일식집 예약할까요?  
케이 (자리를 피하며) 아 네 나중에..

임사장과 가수A의 인사를 받고  
케이이 대기실로 들어오면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난다.

김사장 으따 강피디 한참 기다렸소  
케이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김사장 뭐하나 케츠..으따 난 미국 놈들 말은 영 입에 안 붙어  
민철 컷 걸입니다 사장님  
김사장 (민철을 째러보며) 그래..케츠..뭐하나  
컷걸 (오바로) 컷걸 이에요  
항상 신인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김사장 나는 신인이라니까.. 잉.. 강피디! 어데.. 조용한데로 좀 갑시다

케이의 손을 잡고 나가는 김사장  
우스꽝 스럽게 흔들리는 컷걸의 꼬리

## 8. 카페 (낮)

담배연기가 가득한 카페의 내부가 보여지고, 주변에는 나이든 사람들이 한 팀 앉아있다.  
카페 창밖에서 보여지는 김사장과 맞은편에 앉아있는 케이의 모습  
김사장, 빼놓어진 케이의 커피잔을 돌리며

김사장 긴말 필요 읊고 이 아 안 되면 썸... 나 죽소!  
완전히 오링 담갔어. 좀 도와주소잉?  
케이 잘 되시겠쥬... 김 사장님이 워낙 PR을 잘하시잖아요.  
김사장 잘하긴 뭘 잘혀? 아, 우리 강 피디가 도와줘야 대박이 나는  
것이제... (주머니에서 돈 봉투 꺼내 건네며)



작곡가 (한숨을 쉬며) 난 황당할 꺼 같거든?  
속삭여봐 줘.. 세상에 단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김사장 (못 참고 끼어들며) 아야. 시방 니 애인하고 여관방 들어가서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랑께!

켓걸 어머~ 그럼 전 거의 미쳐요~

김사장 미친 년... 환장허겄네...

어이가 없는 듯 한숨을 푹푹 쉬는 크림.

켓걸 (교태부리는) 아이잉..몰라.. 이렇게요?

김사장 (황당) 야, 이 썩을 년아!  
시방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거여? 너 도로 술집 나가서 술 따를터?

켓걸 (그제야 정신이 들어 시무룩해지는) 죄송합니다...

작곡가 자자 다시 한 번 감시다

슬픈 멜로디에 노래하는 켓걸.

눈물이 글썽해지며 저절로 감정이 잡히고 차분한 음색이 나온다.

작곡가 좋아졌는데? 역시 형님 방식이 통할 때가 있다니까요?

김사장 (으쓱하는) 냄비는 두드려야 각이 잡히는 법이여.

작곡가 (1절이 끝나자 토크백 열고) 오케이! 잠깐 쉬자.  
(크림에게) 2절 싸비는 손 보셨어요?

크림 뭘 손을 봐요?

작곡가 아까 2절 싸비..반복하지 말고  
다른 느낌으로 가자고 한 거요.

크림 꼭 바꿔야 돼요?

작곡가 (가사종이를 보며) 다시 태어난다면...  
이 부분 반복하기엔 좀 진부한 거 같은데..  
너무 사랑하니까.. 어때요..

크림 (날카롭게) 너무 사랑하니까는 안 진부한가요?

작곡가 (당황) 아니..그게 아니라...

크림 그럼 아예 다 새로 쓰세요. 전 빠질 테니까.  
어차피 가수하고 제 가사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됐네요.

김사장 (더 당황) 아니, 거시기, 크림씨,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작곡가 보고) 주호야.. 그냥 작사 선생 말 들어라잉...  
시방 감정도 잘 살고 좋잖여?

작곡가 (못마땅한) 뭐, 정 그렇다면... (하는데)

크림 다시 태어나도 사랑할 만큼 사랑해 보셨어요!

작곡가 네..? 아니, 뭐... (멋쩍어하다가 다시 토크 백 열고)  
자, 싸비 한 번 가 보자. 지금까지진 좋았어.

켓걸 (금방 표정 밝아지며) 정말요? 네~ 같게요. (신나서 준비하는)

다시 음악이 시작되면 컷걸이 신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열창 한다.  
그러자 다시 감정이 깨지며 원래대로의 깨는 목소리가 나오고,  
컷걸의 시선으로 보이는 좌절하는 작곡가와 김사장.  
이 때, 가방을 들고 일어나 녹음실 문을 여는 크림  
갑자기 크게 들리는 컷걸의 찢어지는 노래 소리  
음악이 멈추면

크림                    당신도 마찬가지로!  
                          당신 노렐 듣고 한사람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음악이 장난이야!

놀라 멍청하는 컷걸  
모두 놀라는데 크림은 녹음실 문을 닫고 다른 문으로 걸어 나간다  
어이없어하는 모든 사람들

## 10. 원장실 (낮)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케이의 얼굴에 비치는 따뜻한 햇살  
케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 쉬는 의사

의사                    내가 니네 집안이랑 무슨 인연이냐 이게  
                          니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이 서랍 저 서랍을 뒤적거리다 담배를 찾아 한가치 물고  
불을 붙여 길게 내 뿜는다

의사                    고치는 병보다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  
                          의산데...씨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는 의사

의사                    약...얼마나 남았니?

손가방 에서 약통을 꺼내 들어보는 케이  
몇 알 안남은 소리가 들린다

의사                    (처방전을 쓰며) 약장순지..의산지...  
케이                    전...얼마나 남은 거예요?

담배를 하나 더 부치는 의사

케이                    알고는 있어야죠..

의사의 책상에 놓여진 모래시계가 서서히 줄어가면..

케이                    담배... 하나주세요 아저씨..

케이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건네는 의사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들이다  
쿨럭!..쿨럭..  
고개를 숙이고 계속 기침을 하는 케이  
햇살을 따라 올라가는 아름다운 담배연기  
(F.0)

## 11. 집 (밤)

(F.1)

문을 열고 들어오는 케이  
케이의 시선으로 보이는 집안은 암흑처럼 검검하고 크림의 울음소리만 들린다  
소리를 따라 걸어가면, 연한 창외 달빛에 비춰져 거실 소파에 엎드려 울고 있는  
크림의 모습이 보인다  
고개를 들어 케이를 바라보며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다  
더 서럽게 울고 있다

케이                    (놀라며) 왜 그래?

케이에게 와락 안겨 케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크림  
케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더 슬피 통곡하듯 운다  
크림을 안고 등을 다독이며 안정을 시키는 케이  
케이의 품에서 빠져나온 크림

크림                    (언제 울었냐는 듯) 다시 쓰래.. 촌스런 놈들!

리모콘을 누르면 가사 없이 가이드만 들어있는 슬픈 발라드 음악이 들려온다

크림                    다시 태어난다면! 어때? 제목  
케이                    (شمشم히 미소) 다시..태어난다면..

다시 눈물을 글썽이는 크림  
케이에게 안기는 크림  
리모콘으로 싸비 부분을 반복 한다

크림                    여기야..여기...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태어 난다면.

또 눈물을 흘리는 크림

케이 (크림을 안아주며) 다시..태어난다면..  
크림 (케이를 보며) 진짜루 그럴 수 있다면 넌 뭘 루 태어나고 싶어?  
케이 사람말구?  
크림 뭐든..

크림을 안아주는 케이

케이 글썸..다시 태어난다면..  
반지..  
크림 잠깐 잠깐!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만한 소형 녹음기를 들고 나오는 크림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돌아가는 녹음기

크림 말해봐  
케이 뭐야?  
크림 녹음안하면 맨날 까먹어..시작!

크림을 보고 웃는 케이

케이 무슨 얘기 할라 그랬지?  
크림 다시 태어난다면?  
케이 다시 태어난다면..음..반지?  
안경..침대..일기장..  
안 죽고 영원히 사는거  
크림 그딴걸로 영원히 살면 뭐하니?  
재미없게!  
케이 (웃으며) 니가 날 사 면 되잖아  
니 옆에 있으면 심심할 시간 있겠니?  
크림 (눈이 동그래지며) 넌 역시 감각적이야!  
그래! 그렇게 한번 다시 써 봐야지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크림  
크림을 바라보는 케이의 쓸쓸한 미소

## 12. 방송실 (낮)

스튜디오 안에서 디제이가 청취자 엽서를 읽고 있고 크림이 옆에서 듣고 있다

케이가 씨디 여러 장을 들고 스튜디오로 들어 온다  
케이에게 손을 흔드는 크림

디제이            사람이 사람을 보고 가슴이 떨려 올 수 있는 건  
                      인생에 단 한번 뿐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심장이 하나뿐이고  
                      난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씨디를 책상에 내려놓고 크림에게 손을 흔드는 케이

디제이            사랑은..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  
                      그래서 난 몰래 훑쳐보며 가슴 졸이기보다는  
                      지켜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 하는 걸 바라보기로 했다  
                      미쳤다고! 당연하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해..

아이디 인어공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눈을 감는 케이

## <<후레쉬 백>>

(케이의 눈이 서서히 떠지듯 나타나다)

거실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케이와 크림의 다정한 모습(서서히 Dolly In)

크림            (케이의 발가락을 보며)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기네! 나둔데  
케이            (발가락을 보며) 이러면 엄마가 더 오래 산데  
크림            누가 그래?  
케이            어디서 봤어..어디서 들었나?  
크림            거짓말이야!  
케이            왜?  
크림            (담담) 우리 엄마아빠 똑같이 가셨잖아 사이좋게!

핑! 어느새 눈물이 고인 눈으로 케이를 노려보는 크림

크림            너어! 너까지 나두고 죽기만 해봐  
                      죽여 버릴꺼야!

눈을 뜨는 케이

스튜디오 안 크림과 눈이 마주치자 밝게 웃는다

디제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랑에 빠진 미운오리들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작사가 크림씨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크림씨, 크림씨가 쓴 노래는 가사가 잘 들린다는 평가를  
받고계신데.. 비결이 뭔가요?  
크림                내츄럴하이..자연스러움이죠  
80점짜리 자연미인과 100점짜리 성형미인이 있다  
어떠세요..누구한테 더 끌리시죠?  
디제이            전..둘 다!  
크림                캐릭터 너무 나타내지 마시고..하나만  
디제이            아무래도 자연 미인쪽이 낫죠  
크림                그렇죠! 가사도 마찬가지로  
곡이 원하는 가사를 툭!툭! 곡에 넣어야지  
너무 다듬으면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전 거기에 초점을 두고....

디제이와 얘기하는 크림을 바라보는 케이

### 13. 대기실 (낮)

대기실에서 잿빛 양복에 깔끔하게 생긴 남자 차주환이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다  
대기실로 들어오는 크림  
커피를 마시고 있는 주환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크림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인 주환  
크림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주환을 바라보던 크림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는데 컵이 안 나오고 커피만 줄줄 나온다  
다시 동전을 넣지만 역시 커피만 줄줄줄 나온다

크림                (주환을 쳐다보며) 다 마셨어요?  
주환                네?  
크림                (주환의 종이컵을 보며) 커피!  
주환                네에  
크림                그럼 컵 좀 줘 봐요

이상하게 크림을 보며 컵을 건넨다  
동전을 넣고 주환에게 받은 컵을 자판기 컵 나오는데 밀면  
지잉.. 주르륵 커피가 컵에 담긴다  
주환을 보며 씨익 웃는 크림

크림 (커피를 마시려다) 어디로 마셨어요?  
 주환 네?  
 크림 입! 어디다 댔냐구요  
 주환 모르겠는데요

컵을 쳐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긴 크림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며 커피를 마신다  
 주환에게 컵을 주고 대기실을 나가는 크림  
 컵을 들고 크림을 바라보는 주환

#### 14. 방송실 (낮)

작가와 질문지를 보며 얘기하는 크림  
 진지한 표정의 작가와 달리  
 크림은 어수선하게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다

작가 두 번째 곡 윤상의 이별의 그늘은 말이야  
 가사 해석해줄 때 저번처럼 싸비가 어땠고 야마가 어땠고  
 그러지 말고 좀 방송용어로 진짜 작사가처럼 전문적으로..  
 크림 나 진짜 작사가거든  
 작가 (미안한 듯) 알았어 알았어

작가의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차주환이 스튜디오 문 앞으로 지나간다

작가 알았지 크림..이 코너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거 알지?  
 좀 잘하자 우리  
 크림 (진지하게) 언니?  
 작가 그래! 우리 잘 해나갈 수 있어 크림!  
 할 얘기 있으면 해봐 우리 한 팀이잖아!  
 크림 저 남자 옆방 의학상담 코너 게스트 맞지?  
 작가 (의아한 듯) 응..  
 크림 무슨 의사래?

#### 15. 치과 (낮)

입을 벌리고 치료중인 크림  
 치료가 끝난 후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면 주환이다

주환                    보기에는 레진이 예뻐도 아말감이 더 튼튼해요  
 크림                   (입 안을 행군 후 물을 뺀고) 처음 만나서 뽀뽀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물로 입 안을 행군 후 뺀고) 두 번 만나서 속살보고  
                           세 번째는 뭐 하죠 우리  
 주환                   (놀란 듯) 네?  
 크림                   뭐 그건 그때 만나서 정하죠!

진료 의자에서 내려오는 크림  
 난처한 듯 크림을 쳐다보는 주환

## 16. 집 화장실 (낮)

샤워 커튼을 치고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케이의 실루엣  
 크림이 화장실로 들어와 손을 씻다가

크림                   나 사랑에 빠졌다!

샤워기 물을 끄고 커튼을 조금 여는 케이  
 케이의 시선으로 보이는 크림이 웃고 있다

크림                   (남말하듯) 옆 스튜디오 게스트야..  
                           치과 의사래..  
 케이                   (손을 내밀며) 샴푸 좀 줄래?

샴푸를 받고 커튼을 닫는 케이  
 샴푸를 들고 있는 케이의 머리위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 17. 크림 방 (낮)

한숨을 쉬는 케이  
 속옷과 입던 옷들이 널브러져있는 크림의 방  
 케이가 들어와 자연스럽게 침대와 책상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의 청첩장을 본다  
 열어보면 2004년 2월 14일,  
 청첩장 글귀 중

평생을 두고 서로 지켜주며 영원히 서로의 옆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글귀에 시선이 고정되어있는 케이

## 18. 부엌 (낮)

돌아가는 세탁기에 기대어 있는 케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  
약통에서 약을 두알 꺼내 오드득..오드득..씹어 먹는다  
우우우우우웅...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손에 쥐고 있는 청첩장을 꼭 움켜쥔다

## 19. 교통방송 스튜디오 (낮)

스튜디오 안에서 디제이가 서울시내 교통상황 말하고 있다  
스튜디오 앞에 앉아 있는 40대 초반의 최피디  
케이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온다

케이 (목례 한후) 식사하셨어요 선배님  
최피디 (케이를 보며) 응.. 철규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오늘 녹음 있냐?  
케이 아니요...저 선배님  
선배님 프로에 출연하는 그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최피디 의사? 응 차주환이!  
케이 잘 아세요  
최피디 주환이 잘 알지 내 중학교 고등학교 직속인데  
케이 어때요... 사람?  
최피디 진국이지 주환이.. 근데 그 새끼 술을 안쳐먹어!  
근데? 치과에 볼 일 있어? 실력 있어! 주환이  
케이 그냥 왔다 갔다 몇 번 봤는데 인상이 참 좋아서요  
최피디 인상만 좋니 집안 좋지, 성격 좋지, 돈 잘 벌지  
꽤 잘나가는 치과 의사 아니냐  
주환이 같은 애는 딱 사뭇감인데..딸내미가 없어요 내가  
근데 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어디 아프냐?

엔딩곡이 흐르고 디제이가 나오면, 쳐다보는 케이와 최 피디

디제이 아..오늘 멘트빨 좀 짬.. 심하게 좀 오르네에  
한잔 해야지 피디 피디 최 피디  
최피디 아 한잔만 할꺼면 우리 안마시지 제이 제이 디제이  
디제이 아 그러면 우리 또 오늘밤을 어젯밤처럼

##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야 하나요 아이 참

스튜디오에서 나오다 복도 벽에 붙어있는 개국 40주년 D-136를 바라보는 케이  
136이란 숫자 C.U (케이의 남아있는 시간을 암시하는듯 보인다)  
마치 자신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듯한 텅빈 눈동자

## 20. 방송국 피디실 (낮)

책상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는 케이

친구소리	주민번호만 불러봐
케이	(종이를 보며) 750313..
친구소리	철오공에.....
케이	병원 기록 같은 건 확실하게 나오는 거지
친구소리	야 보험회사가 어떤 회산데 경찰서보다 더 무서운데야 여기 근데 니가 왜 남자 병원기록을 찾냐?

김사장과 민철이 책상에 앉아있는 피디들에게 씨디를 돌리며 돌아 다닌다  
케이를 보고 활짝 웃으며 다가오는 김사장

케이	(김사장에게 목례를 하며) 그럴 일이 좀 있어
친구소리	됐다! 연금보험 들었구...건강보험 들었네 이 친구.. 특별한 가족력이나 수술경력 없는 걸로 나와있구 가입할 때 건강검진 첨부해서 건강체 할인도 받았어
케이	확실한거지?
친구소리	그렇다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금 안줘야 먹고 사는 회사예요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도 기록만 있으면 딱 걸려
케이	그래 고맙다 다음에 한잔하자

전화를 끊으면 책상 앞에서 씨디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김사장

케이	시간 어떠세요 김사장님
김사장	읍스면 만들어야지요 시간!

김사장이 들고 있던 CD가 책상에 놓여지면서

## 21. 교통방송 스튜디오 (낮)

켓걸의 사진이 표지인 씨디가 보여 지고, 대본을 보고 있던 주환이 CD를 잡는다.  
올려 보면, 주환을 보며 웃고 있는 크림.

크림            선물...!  
주환            (얼떨결에 씨디를 받으며) 고맙.. 습니다  
크림            고마운 걸로 안되겠는데요..  
                  처음엔 입술.. 두 번째 속살.. 세 번째 내 정신세계..  
                  술 한잔 사요?

크림을 보고 웃는 주환

## 22. 와인바 (밤)

와인 잔을 들어 올리는 여자의 손.  
잔을 입으로 가져가고, 얼굴이 보여 지면, 켓걸이다.  
김사장과 켓걸, 민철, 케이이 와인을 마시고 있다.

김사장            (와인 잔을 보며) 아따, 이것이 포도로 만들었어도 계속 마시니께  
                  쪼까 올라오는 구마이.... 음.. 그건 그렇고...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나 참 오래 살고 불일이어...  
                  나가 소시적에 음지에서 일할 적으 터득했던 노하우로  
                  우리 강피디를 도울 일이 있을 줄 으찌 알았으까잉...  
케이              감사합니다. 김사장님  
김사장            감사는 뭘 감사여? 난 그냥 우리 얘기, 우리 이 케츠.. (하다가)  
                  이름 확 바꿔버릴까부다 쓰벌...  
민철              켓 걸.. 입니다 사장님  
김사장            (화를 내며) 안다니까 새끼야! 나도 알아!  
                  대가리론 아는데 주둥아리로 안 나오니까 더 환장하는 거  
                  아니냐, 시방!  
켓걸              (애교를 떨며)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부르세요  
                  고양이면 어떨고 강아지면 어때요..(배시시 웃는)  
김사장            아야, 니들은 저 쪽에 가서 찌꼬리고 있어라잉.  
                  난 우리 강피디랑 쪼까 중요한 얘기를 해야 형께.  
민철, 켓걸        예.

케이와 김사장의 사이로 보이는 다른 테이블로 가는 켓걸과 민철.

김사장            (주변을 살피다가 강피디 옆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거시기..  
                  나가 애들 시켜서 쪼까 알아봤는디, 일단 그 차주환이네 집안,

위로 3대까지 뒤졌는데... 참 집안 굽습디다..  
 집안에 바람퍼서 마누라 속 썩인 양반 한 명 없고,  
 보통 이런 샌님들이면 허벌나게 가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며!  
 부동산이 술잔히 있더마이.... 집도 몇 채에, 땅도 있고 건물도  
 짹짹한 거 갖고 있고... 공부들은 겁나게 많이 했는디, 집안에  
 그 뭐시냐, 우리 쪽 학교 가서 콩밥 드신 양반도 없고, 아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건전한 가족들이여..상당히...

케이 (다행이라는 표정) 네...  
 김사장 게다가 그 차주환이란 친구 말이여, 완전 퍼펙트여!  
 에이스 포카에 내츨럴 나인이여!  
 케이 약혼한지는 한 달 쯤 넘었고 약혼녀 이름이 임제나여 임제나  
 김사장 (얼굴이 굳어진다) 약..혼..녀..요..?  
 응..뭐 문제 있는가? 즈그 아버지들 끼리 그 지역 유지인가벼  
 뭐 이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하는 모범적인  
 그런 약혼인거 같은디  
 그거이 미래 지향적이지.. 세상이 험한께로!

케이가 잡고 있던 와인 잔이 클로즈업되고,  
 잔을 들어 올리면,

### 23. 다른 와인바 (밤)

케이의 잔과 디졸브 되는 잔을 드는 크림

크림 사랑에 빠져본 적 있어요...? 돌맹이가 강물에 빠지듯 풍덩!  
 주환 돌맹이가 강물에 빠지듯? 재밌네요  
 크림 돌맹이의 마음을 알아요...?  
 점점 물속으로 빠져드는데 이걸 누군가 꺼내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강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  
 하지만 누가 강물 바닥에 깔려있는 돌맹이를 꺼내주겠어요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지..  
 그리고 강물에서 나오고 싶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는 주환의 표정

크림 반지 좀 쥘봐요  
 주환 네?  
 크림 (주환의 오른손에 있는 반지를 보며) 그 반지..

반지를 빼서 건내는 주환

크림이 주환의 반지를 화이트 와인이 담긴 자신의 잔에 넣는다  
기포와 함께 서서히 가라앉는 주환의 반지(고속촬영)

크림            이렇게!

와인 잔을 들고 와인을 다 마시고 주환을 보며 웃는 크림  
잔 안에는 반지가 없다  
크림 입속의 반지를 꺼내 자신의 왼손 검지에 낀다

크림            이렇게 누군가가 꺼내줄 수도 있고!

크림을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연다

주환            (와인을 한잔 마시고) 약혼했어요 저

멍하니 주환을 바라보던 크림이 갑자기 웃기 시작 한다  
당황하는 주환

크림            깔깔깔깔!

칼처럼 웃음을 멈춘 크림

크림            무슨 상관! 마셔요 우리

계속 웃는 크림을 바라보는 주환

## 24. 케이 방 (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크림  
거실의 조명에 비친 케이는 자고 있다  
케이의 이불속으로 들어가 뒤에서 케이를 안는 크림  
눈을 뜨는 케이

크림            추워..  
케이            한잔 했어?

케이를 꼭 안는 크림

케이            그 사람 어디가 좋은데?  
크림            소득되는거같아..

케이                    소독?  
크림                    소독...

뒤에서 케이를 안고 눈을 감는 크림  
벽에 붙어있는 보드판에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들이 뒤엉켜있다  
아라비아 숫자 1과2이 알파벳 0 와 섞여 마치 숫자 120을 연상시킨다  
바라보고 있는 케이, 120 C.U  
잠시 후 케이가 베개를 들고 일어나 방에서 나가고  
익숙한 듯 혼자 잠드는 크림

## 25. 부엌 (밤)

가스레인지 위 주전자에서 물이 끓으며 수증기가 날린다  
인스턴트커피를 컵에 넣는 케이의 손  
뜨거운 물을 커피에 넣는다(타이틀 씨퀀스에서 보여진 장면)  
커피를 식탁위에 올려놓고 거실 수납장을 열어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식탁에 앉는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담배에 불을 부쳐 길게 내 뿜는 케이  
들고있는 라이터를 꺾다..꺾다.. 꺾다..꺾다..하며 라이터를 바라본다

## 26. 거실 (낮)

식탁에서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케이와 크림  
케이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크림의 눈, 귀, 입술의 이미지  
식사를 마친 크림이 먼저 일어나며

크림                    먼저 간다..이따 봐  
케이                    야!  
크림                    (돌아보며) 왜  
케이                    옷이 그게 뭐니?  
크림                    (자신을 둘러보며) 옷이 왜?  
케이                    촌스럽게....다른 거 입어  
크림                    ?  
케이                    기다려 봐!

## 27. 크림 방 (낮)

크림의 옷장을 열고 옷들을 바라보는 케이  
빨간색 더플 코트를 잡으면

<Insert>

대학 입시 면접장 복도

남학생 한명이 들어가는 교실 문 앞에 399-429 면접실 이라고 써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가슴에 수험표가 붙은 교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남학생들  
다른 남학생들은 엄마와 함께 있고

케이는 빨간색 더플코트를 입고 있는 크림이 옆에 있다

케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크림

## 28. 아파트 복도 (낮)

크림소리           (짜증스럽게) 야!

복도를 걸어 나오는 케이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나온다

크림소리           니가 내 코디네이터야! 나두 옷 잘입어!

뒤돌아보지 않은 채 크림에게 손을 흔드는 케이

## 29 . 거리 (낮)

케이가 거리를 걷는다

고탄 프로젝트( 탱고와 테크노를 접목시켜 큰 반응을 얻은 유럽의 테크노 그룹)

풍의 자극적이면서 슬픈 탱고가 들려오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

눈물을 흘리며 걷고 있는 케이의 쓸쓸한 모습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걸지만

케이는 멍하니 깜박이는 파란 불을 바라만 보고 있다

## 30. 미용실 (낮)

미용실의 테라스 소파에 김사장과 마주앉은 케이

김사장은 파마 캔을 쓰고 있고 파마약이 눈에 들어갔는지

연신 눈을 부릅떴다가 감았다 한다

김사장

강피디 그라지 말고 속 시원히 말해보쇼!

그때 그 차 머시기가 허는 놈한테 돈 띠었소?

그런 거든 그렇다고 말을 하쇼잉~ 우리 동생애들 오전에



친구2 그래서 그냥 왔어 한국에  
 작가 그랬더니 가지 말라구 어찌나 발목을 잡아대는지..  
 앞으로 한국에서 활동 할라구?  
 파인아트는 이제 재미 없구 광고나 뭐 영화포스터 좀 해 볼라구  
 참 제나! 너 이제 카메라 안 만지니?  
 하긴 너야 뭐 다 취미지..  
 요즘엔 뭐하고 노냐? 여기선 양키랑은 못 놀꺼구..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좀 놀자..  
 제나 이 사진 얼마니?  
 작가 눈은 살았대니까.. 니가 사면 삼천불에 주지  
 제나 (지갑을 열며) 삼천불이면 얼마야?  
 친구1 그냥 열배해서 삼백만원  
 제나 (수표 몇 장을 건네며) 나머지 통장으로 넣을게 문자로 계좌 넣어  
 작가 이거 이제 내꺼지?  
 니꺼지.. 그거 몇 장 프린트 안했다

지갑에서 립스틱을 꺼내는 임제나  
 사진에 립스틱으로 [참 잘 했어요] 라고 쓴다

제나 우리 집 주소 모르면 그냥 버려! 쓰레기통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작가와 병찜 친구들을 뒤로하고 표정 없이 전시회장을 나오는 제나

## 32. 중국집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주환과 제나

주환 어머니랑 집 보고 오셨다면서요?  
 제나 네  
 주환 같이 보고 싶었는데..환자가 너무 많아서  
 제나씨랑 같이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제나 그냥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환 각자..  
 가족이라는 게 구속이다 싶을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하지 않나요  
 제나 제 생각은 좀 달라요..가족은 어차피 떨어질 수 없는  
 구성원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정신적 독립이 필요하잖아요  
 주환 정신적 독립이요..  
 제나 자존감... 인간은 스스로 사는 인격체죠



### 34. 입원실 (낮)

가습기의 연기에서 카메라 이동하면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는 케이와  
답답한 듯 케이를 바라보고 있는 의사의 모습  
크림이 들어와 케이를 보는데 눈물이 고여온다  
케이의 시선으로 보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다시 문을 닫고 나가는 크림

의사                    저 친구도 모르니?  
케이                    크림한테 전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저 친구..제가 아무리 무거워도  
                          아마 절지고 간다고 할껄요  
                          제가 먼저 사라져야죠..  
                          연기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면 좋을텐데..  
의사                    그래도... 엄마는.. 나중에라도 아시면  
                          그 마음이 어떠시겠니?  
케이                    잘 살겠다고 가신 분 앞으로도 잘 살게 해드려야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크림  
케이를 노려본다

크림                    (눈물이 글썽인다) 야! 너! 인간이 왜 그래.. 왜 그 따위야...

크림을 안아주는 케이

크림                    (눈물을 훔치고) 근데 애 왜 쓰러진거예요  
의사                    (당황) 음..그게...애가 선천적인 경향도 있지만 식생활에 있어  
                          칼슘이 부족하다 보면 음...  
크림                    아니 너랑 나랑 똑같은 음식 똑같이 먹고  
                          똑같은 집에서 같이 산지가 벌써 몇 년인데  
                          왜 너만 쓰러지고 지랄이니?  
케이                    (장난스럽게) 니가 나보다 더 먹잖아..  
크림                    너어! 앞으로 멀치만 먹고 살아! 알았어?

크림을 보며, 웃는 케이의 얼굴.

### 35. 한강 고수부지 (낮)

민철, 제나, 케이가 고수부지에 서있다  
이들의 심정을 알고 있는 듯 강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제나가 사진을 들고 있고 케이는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며 서있다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민철

제나                   (민철에게) 야!  
민철                   (놀았다) 네?  
제나                   재가 지금 뭐라 그랬니?

케이와 제나의 눈치를 살피는 민철

민철                   파호...온 하시라고....

지갑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 불을 붙이고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하다가 할 말이 없다는 듯 케이를 바라본다  
무표정하게 강물을 바라보는 케이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자신의 얼굴이 찍혀있는 사진과  
차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을 바라보는 제나

제나                   (케이를 보며) 개새끼....

### 36. 오뎅바 (밤)

오뎅바의 국물통에서 나오는 수증기들 때문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술집의 내부  
말없이 술잔을 비우는 민철과 케이

케이                   라이터랑 담배의 사랑애기 들어봤어  
                          딱 한번 이었데..뜨겁게 딱 한번 만나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기로 끝까지 타오르다  
                          하얀 연기가 돼서 사라졌데..아쉽지..딱 한번이라니

자신의 라이터와 담배를 번갈아 만지며 케이를 보는 민철

케이                   아빠가 돌아가신 게 내가 열 살 때 었어  
                          가슴이 아프다는 말 알지  
민철                   네...  
케이                   정말 아프더라구..그리고 내가 열여덟 살 때  
                          엄마가 시집갔어...딱 한번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매달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민철 ?  
 케이 아빠...아빠가 엄마도 나두 그렇게 만든 거거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먼저 죽는 게 어딴니  
 세상에서 제일 모질고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크림을 만났는데...애는 아무도 없더라고  
 난 원망하고 기다릴 엄마라도 있지  
 크림은 동생이랑 엄마랑 아빠가 같이 크림을 떠났대  
 같은 차를 타고, 교통사고로... 민철아  
 민철 네  
 케이 근데..또 하필이면 나 같은 놈을 만난거야..  
 금방..죽어버릴..놈을...  
 담배는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끝이지만  
 남아있는 라이터는 어쩔하니..

술집 밖 도로에 지나가는 96번 버스  
 버스를 유심히 바라보는 케이, 96 C.U

### 37. 제나의 작업실 (밤)

카메라가 하얀색 벽면을 보여주다가 이동하면, 똑같은 크기의 동그란 시계들을 보여준다  
 자세히 보면 멈춰있는 시계들  
 스튜디오 중앙에 놓인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 제나  
 제나의 귀에 케이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린다

케이소리 제 마음속에는 지금 양심 같은 거 없습니다  
 전 이제 곧 죽으니까...  
 파혼해주세요  
 차주환씨와 크림을 결혼시키고 싶습니다..

제나 미친 새끼...

### 38. 카페 (낮)

제나와 마주 앉아있는 케이  
 제나, 케이를 쳐다보며 어이없어하다가 웃다가를 반복한다.

제나 왜 하필 내 걸 달라는 거야...?

말없이 벽시계를 바라보는 케이

제나                    좋아... 그렇지만 당신의 그 대단한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수정해야 되는 난 이 원수를 어떻게 갚지?  
당신이 죽은 뒤에 이 일을 그 사랑한다는 여자한테 폭로할까?

놀라는 케이의 얼굴을 흥미로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웃는 제나

제나                    모델이 되줘!  
죽어가는 사람이나 죽기 바로 직전의 사람  
그런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  
자극적이잖아? 인터레스팅하고...

제나를 바라보는 케이의 당황스러운 눈

제나                    그렇게 쳐다보지마! 당신 인격 없다며!  
그 행복한 여자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해 주지  
(차갑게 웃으며) 형평성은 맞춰야지!

### 39. 횃집 (밤)

사랑에 빠진 미운 오리들 스텝과 교통방송 스텝이 회식을 하고 있다  
최피디와 주환 나란히 앉아있고  
케이와 크림이 들어온다

최피디                    (케이에게 손짓하며) 여기

스텝들에게 인사하며 들어오는 케이와 크림  
주환과 크림이 서로를 보고 환하게 웃는다  
주환 옆에 크림, 크림 옆에 케이가 앉는다

최피디                    왜 이렇게 늦었어...  
케이                    녹음이 아직 안 끝나서요.. 전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피디                    적당히 알아서들 하라그러고 한잔해야지  
케이                    끝내고 다시 올게요  
최피디                    우리 2차 어디니 김작가?  
김작가                    아직 안정했는데요  
케이                    제가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크림                    갔다와

크림에게 눈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케이

#### 40. 횃집 (밖, 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고조 시키는 캐를  
지나가는 연인들에게 광고지를 돌리는 산타복장의 알바들  
보도블록에 앉아있는 케이의 고통스러운 표정  
가방에서 약을 꺼내 네 알을 털어 넣고  
잠시 호흡을 고른 후 맞은 편 일식집을 바라보면  
주환과 크림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주위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며 케이의 심장소리만 들린다  
다정한 모습으로 연말 분위기를 즐기며 지나가는 연인들이  
케이 앞을 지나가지만  
케이의 시선에는 크림과 주환만 보인다 (사람들은 흘러가는 이미지)

#### 41. 집 (밤)

케이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데 크림이 들어온다  
서로를 보고 깜짝 놀라는 케이와 크림

케이	(놀라며) 왜 벌써왔어 ?
크림	(크림도 놀라며) 넌? 녹음 있다며?
케이	응응.. 어떻게 그렇게 됐어
크림	나두.. 어떻게 그렇게 됐어

가방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는 크림

크림 (녹음기를 켜며) 좀 떠들어봐..아이디어가 딸린다

싱크대에서 젓가락을 들고와 케이 앞에 앉아 케이의 라면을 먹는 크림  
크림 앞에 머그잔을 밀어 놓는 케이

케이 물 먹고..  
물을 받아 마시는 크림

케이	밥 안 먹었어?
크림	먹었는데.. 살찔려나 계속 핑기네 넌 왜 밥 안 먹고 라면질이니?



아무나.. 내 가족이 되주기를 바래본적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은...  
 혼자 두면... 안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나 난 항상 궁금했거든...  
 사랑 했네 어쩌네 하면서 죽네 사네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죽네 사네 하는지  
 근데 당신은 진짜 거 같아서 물어 본거야  
 도대체 사랑이 뭐야?

잠시 침묵

케이 양치 같은 거!  
 제나 양치? 그건 혼자 하는 거잖아  
 케이 (차갑게) 누구 보라고 양치질하세요

케이를 가만히 쳐다보는 제나

### 43. 치과 (낮)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치료실에서 주환이 크림의 이를 치료하고 있다

주환 어젠 왜 안 오셨어요?  
 크림 (입을 벌리고 있어 말하기가 힘든 상태) 애어.. 아기려어어  
 주환 네?  
 크림 (손가락으로 입에 채워진 고무를 가리키는 크림) 이어어

주환이 웃으며 입에 채워진 고무를 벗겨주면

크림 휴우..나! 기!다!렸!나!구!요!  
 주환 (당황) 아..아니 꼭 그렇다기 보단 매일 오던 사람이 안오니까  
 크림 혹시 사랑에 빠지신 거 아니예요  
 주환 네?  
 크림 사랑이 그런 거 아닌가! 기다려지고 궁금해 지는거  
 주환 아니 전 의사로써 환자가..  
 크림 (말을 막으며) 모든 환자를 다 기다리세요  
 주환 뭐..음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하는 주환  
 보며 웃고 있는 크림

크림 뭘 얼굴까지 빨개지고 그래요..사랑이 다 그런거지

#### 44. 편성부장 방 (낮)

화면 가득 보이는 케이의 뒷짐을 진 모습에서 카메라 이동하면, 심각한 표정의 모습이 보인다.

부장 (서류를 내리 치며) 야, 강철규!  
케이 네, 부장님.  
부장 도대체 김갑식이한테 얼마나 받아먹었어?  
케이 네? ...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케이

부장 아니면, 그 고양이 같은 년한테 자빠지기도 했냐?  
이게 뭐야, 이게!  
니 프로에서만 컷걸이 한주에 7회 나갔는데  
다른 매니저 애들이 가만있겠냐?  
니 프로 감사하라고 투서 들어왔어, 임마.

부장 옷걸이에 걸린 조기 축구 유니폼 넘버 88 을 유심히 바라보는 케이  
88 C.U

부장 안 그러던 애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케이 아닙니다. 별 일 없어요.  
부장 너 그런 쪽으로 깨끗한 거 내가 아니까 이번 건 내가 어떻게  
넘겨보겠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나까지 오해받아, 임마.  
케이 죄송합니다.  
부장 김갑식이가 자꾸 괴롭히면 나한테 얘기해.  
아예 출입금지 시켜버릴 테니까.  
케이 네...

돌아서 나가는 케이.  
답답한 듯 케이를 바라보는 부장

#### 45. 제나의 작업실 (낮)

케이가 힘없이 걸어온다  
얼굴이 취한 사람 같다

제나                    좋은 일 있어요?  
대낮부터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케이가 약병을 흔든다  
약병을 쳐다보는 제나

케이                    혹시 마약 좋아해요.. 이 진통제 정도면 일반인한테는 마약일걸요  
제나                    뉴욕에서 질리도록 해봤어요. 끝고루...  
케이                    어때요..마약도 이 약처럼  
                              먹으면 통증이 없어지고 나른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 좋아져서 다시 살아 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고  
                              그러다 약효가 떨어지면 막 죽고 싶어지고 그래요

케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제나

케이                    그때 시간이 멈춰지면 제일 먼저 뭐 할꺼냐구 물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멈춰있고 나만 돌아다닐 수 있다면..  
제나                    있다면..?  
케이                    크림한테 가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해.. 끝까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다음엔 우리 동전으로 태어나자  
                              년 앞면 난 뒷면  
                              마주 볼 수 없어도 영원히 같이 있게  
                              바라 볼 수 없지만 죽어도 같이 있게

눈물이 글썽거리는 케이

케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케이를 바라보는 제나

## 46. 케이 방 (낮)

박스 안에 옷들과 20년 전 MBC 청룡 어린이 유니폼이 가지런히 정돈 되어있고  
박스 옆 쓰레기봉투 안에는 잡다한 물건들이 버려져있다  
책상 앞에 앉은 케이가 앨범 마지막 장의 사진들을 떼어내어  
쌓여있는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고  
빈 앨범을 책꽂이에 꽂는다  
책꽂이 밑 수납장에서 작은 박스를 꺼내 열어 물건들을 만져본다  
그 안에 들어있는 구식 워크맨, 로봇 태권브이, 구슬, 그림일기와

엄마 아빠와 함께 찍은 열 살 생일의 행복한 케이의 사진  
 사진만 꺼내 놓고 박스안의 물건을 쓰레기봉투 안에 버린다  
 두 번째 박스를 열어보면 네잎 클로버, 합격증, 향수, 편지..  
 크림과 함께 찍은 사진들 중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골라두고  
 나머지 물건들을 쓰레기봉투에 버린다  
 사진 두 장을 지갑에 넣고  
 쓰레기봉투와 박스를 들고 방을 나오는 케이  
 방안 물건은 그대로인데 케이 가 없는 방안이 왠지 아무것도 없는 듯 텅 비어 보인다

## 47. 카페 (저녁)

고급스럽고 모던한 분위기의 카페의 모습이 보여지고  
 한쪽 편에 제나와 주환이 마주앉아있다  
 조용하고 엄숙해 보이는 이들과는 반대로 웃는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제나                   (커피 잔에서 입을 떼며) 이집 커피 참 맛있지 않아요  
 주환                   오늘은 왠지 씁쓸하네요

커피를 마시며 침묵하는 두 사람

제나                   근데 지금 혹시 제가 닥터 차한테 뽀 맞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환                   상식적으로라면 지금쯤 제가 제나씨의 뽀를 한 대 때리고  
                           내 인생 책임져.. 뭐 이런 장면이 나와야 할 것도 같은데  
                           약간은 고마운 마음도 드는 제가 참 어이없네요

커피를 마시며 침묵하는 두 사람

제나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대답해 주실래요..  
 주환                   얼마든지요  
 제나                   혹시 시간이 멈춰지면 제일 먼저 뭐가 하고 싶으세요  
 주환                   시간이 멈춰진다... 다른 사람의 시간은 멈추고 저만?  
 제나                   네  
 주환                   (고민) 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외롭지 않을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주환과 제나

## 48. 와인바 (밤)

주환이 크림의 잔에 얼마 남지 않은 와인을 다 따르고 있다  
와인잔에 아름답게 담기는 와인

차주환            내 마음속에 돌맹인 이제 하나예요  
크림                네?  
차주환            파흔했어요 저..  
크림                ?  
주환                반응이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약하네  
                      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 책임질꺼죠  
크림                어떻게 책임져 드릴까요  
주환                일단 부모님부터 보여줘요  
크림                (남 말 하듯) 나 엄마 아빠 없는데!  
주환                부모님이... 안계세요.?  
크림                (손으로 액션을 취하며 남 얘기 하듯)  
                      내가 중 삼 때.. 그때 보충수업시간이었는데  
                      담임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와서 날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런 표정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사형수한테 죽으러 가자.. 하기 뭐하니까  
                      면회 왔다고 그럴 때 보이는 표정!  
                      영화에서 그런 장면 못 보셨어요  
주환                ?  
크림                그런 표정으로 날 부르더니.. 교무실가서 그러더라구요  
                      병원으로 지금 빨리 가보라구  
                      내가... 왜요? 라고 물어 봤을 때  
                      응 니네 부모님이랑 니 동생이 두 시간 전에 사고로 사이좋게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병원에 안가고 그 꼴은 안 봤을 텐데...  
주환                (굉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아아..네에  
크림                그때부터 옆에 있었어요  
주환                누가...?  
크림                케이...  
주환                케이?  
크림                몇 번 보셨을텐데 우리 방송 피디..강철규라고..  
                      이름이 너무 바보같이 착해서 난 그냥 케이라고 불러요  
주환                아아..그분.  
크림                식탁에선 엄마고.. 사회에선 아빠고.. 슬플 땐 오빠고  
                      가끔.. 애인 같기도 해요..결정적일 땐 바보가 되지만!

크림을 말없이 쳐다보는 주환

주환                    키스해도 되요  
크림                    키스 하고 싶으세요

크림에게 키스하는 주환  
(“짹!!” 소리와 디졸브)

## 49. 집 (밤)

짹!!!! 소리와 함께 현관으로 크림이 들어오다가  
거실 벽에 깨져있는 유리컵을 보고 놀란다  
크림이 현관에서 주방으로 들어오는데 크림을 노려보는 케이  
크림의 시선으로 보이는 피가 흐르는 케이의 손

크림                    (놀라 주방으로 뛰어가며) 왜 그래?  
케이                    (매섭게) 야! 너 몇 살이야! 내가 니 종이야!  
                              내가 언제 까지 니 뒤통치닥거리 해야 돼!

크림이 피가 흐르는 케이의 손을 잡으려하자 뿌리치는 케이  
바닥에 떨어지는 케이의 핏 방울

크림                    미안해 알았어..내가 할께..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손 좀 이리줘 봐..피나잖아  
케이                    (뿌리치며) 니 일이나 제대로 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케이

## 50. 케이 방 (밤)

크림소리            문 좀 열어봐..손 왜 그런 거야?

침대 옆의 책을 문으로 던지는 케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책  
컷투

노크소리와 함께 문 밑으로 노란색 포스트일이 붙어있는 A4 용지가 들어온다  
침대에서 일어나 A4 용지를 보는 케이  
[바보] 라고 적혀있다

[보지마] 라고 써 있는 포스트일을 떼어보면[진짜 바보]  
피석 웃다가 벽에 쓰러지듯 기대며 울어버리는 케이

## 51. 방송실 (낮)

크림과 디제이가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스튜디오 밖에서 지켜보는 케이

디제이                    그럼 아이디 인어공주님의 신청곡 컷걸의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크림씨가 작사하신 곡이죠  
                                  들어볼까요..다시 태어난다면..

컷걸의 <다시 태어난다면> 들려오고  
스튜디오 안에 크림이  
밝게 웃으며 스튜디오 밖으로 손을 흔든다  
케이 크림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려할 때  
작가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해 돌아보면 주환이 크림을 보고 손을 흔들고 있다  
크림과 주환이 서로에게 손짓으로 인사하는 걸 지켜보는 케이  
주환이 케이를 바라 본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케이와 주환  
들려오는 컷걸의 <다시 태어난다면>  
케이가 책상 위 달력을 들어 세어보고 종이에 '[78..77..76..75..74]라고 천천히 쓰다  
펜으로 직직! 써놓은 날짜를 지워버리는 케이  
약을 꺼내 먹고 일어서서 나간다

## 52. 부장실 (낮)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있는 부장과 케이  
분위기가 무겁다

부장                    (달래듯) 너무 섭섭해 하지 말고... 좀 선다고 생각해라.  
                                  (짜증내듯) 그러게 임마, 내가 경고했잖아!  
                                  매니저새끼들한테 자꾸 휘둘리지 말라고.  
케이                    죄송합니다.  
부장                    너... 몸도 많이 안 좋다며?  
케이                    ....  
부장                    어디 공기 좋은데 가서 몸 좀 챙기고 있어  
                                  늦어도 다 다음 개편 땀 다시 부를 테니까...

케이                    아닙니다, 부장님. 저 때문에 무리하지마세요  
 저, 미국에 갈 생각입니다

부장                    미국? 미국엔 왜?..

케이                    공부 좀 하려구요

부장                    공부? 야, 갑자기 뭘 공부를 해? 너 혹시... 사표 쓰겠다는 거야?

케이                    ...에.

부장                    (놀라) 야! 강피디! 너 지금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이까짓 징계 좀 먹었다고 사표를 내?  
 까불지 말고 미국이든 지방이든 어디 가서 좀 놀다와..  
 (하다가) 알았어, 알았어! 다음 개편 때 부를 테니까  
 걱정 하지마, 자식아.

케이, 일어나서 나가다가 부장을 한번 돌아본다

케이                    부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한 호흡 쉬고) 건강하세요...

부장                    얼씨구? 너 연기 공부하러 가냐? 왜 그래, 임마?  
 세상 끝난 놈처럼...

케이                    (쓴 미소 짓고는 인사하고 돌아 나간다)

부장                    그동안 프로그램 아이디어나 잘 짜구 있어, 알았지?

케이, 대답 없이 그냥 나가고.

부장, 불안한 표정으로 그런 케이의 뒷모습을 본다.

### 53. 복도 (낮)

복도를 걷고 있는 케이

                  김사장 소리                    강피디..강피디..

돌아보면 김사장과 민철이 뛰어 오고 있다

김사장                (숨을 고르며) 하..하..소식..들었소..  
 그래서 나가 지방 국장 면담 예약했소..잉..  
 강피디 같이 실력 있는 사람을 짜르면 안되제... 그런 법은 없는  
 것이여...

케이                    짤린 거 아니에요.. 저

김사장                아, 그것이 그것이제... 피디는 프로그램 손 놓으면 필드 떠난  
 골프선수여. 쪼까 기다려 보쇼, 나가 국장헌티 강력 항의를 해서  
 당장 강피디 복귀하게 할텨께...

케이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당분간 쉴라구요  
 김사장                참말이요? 나가 들은 얘기랑 대본이 틀린 것 같은디?  
 케이                    아니라니까요.. 저 미국 가요.. 공부 좀 더 하고 올라구요..  
 김사장                그라요? 정말인가? 그러면 국장 면담 취소해야 쓰것는디  
 케이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고  
                           (민철을 보며) 민철이도,,

커다란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눈물을 글썽이는 민철

김사장                아 참..민철아 그 데모 테입 들려야지 잉..니 우냐?  
                           어따 미친놈..야야..얼굴 쪼가 들어봐야? 너 왜 우냐?  
                           아, 우리 강피디님이 어디 죽으러 가냐? 똑 못 그치냐?  
 민철                    (얼굴을 숙인채로 가방에서 씨디를 꺼내며) 여기요 선생님..  
 케이                    (씨디를 받으며) 뭐예요? 또 판 나오시나봐요?  
 김사장                나가 이 바닥 다른 때니저 놈들허고 틀린 점이 뭘 줄 아쇼?  
                           남들은 잘나가는 피디한테만 달라붙어서 사발 풀 적에 우리는  
                           이렇게 떠나가는 양반한테도 끝까지 의리를 지켜볼고  
                           인간적으로다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잉...  
 케이                    예... 들어보겠습니다.  
 김사장                완전 슬픈 발라드디, 곡이 예술이여. 멜로디가 막 녹아분당께...  
                           이거 가사를 그때 그 크림인가 하는 양반이 쓰면 잘 붙을 거  
                           같은디.. 글고 이걸 그 양반만 쓰는 것 잉께..내가 똥똥 안돌렸어  
                           편히 작업하시라고 해주쇼잉....  
 케이                    고마워요 김사장님.. (미소)  
 김사장                (그 와중에 또 자랑하는) 이 노래 부를 애가 우리 신인 남잔디..  
                           일단 얼굴은 장동건에 몸은 송승헌이야. 거기다 댄스는 비가 와서  
                           보면 울고 간당께. 거기다 또 집안이... 어우~ 개네 아버지가  
                           사단장 출신인데, 투스타까지 했잖아... 더 이상 갈 부가 없어~

김사장의 말을 걸음으로만 들으며 울고 있는 민철을 바라보는 케이

## 54. 집 (밤)

크림이 CD플레이어에 씨디를 넣는다  
 들려오는 곡은 #2의 가수A가 들었던 곡에 가사가 없는 곡

케이                    잘 써놔  
 크림                    발라드네...

소파에 앉아있는 케이의 무릎을 베고 눕는 크림

테이블에는 신문, 서적등과 크림의 녹음기가 놓여 있다

크림           결혼이 뭐니?  
케이           결혼..?  
크림           결혼!  
케이           결혼...  
크림           (테이블 위 소형 녹음기를 켜는 크림) 잠깐! 오케이

녹음기를 바라보는 케이

케이           화장실에 있는 칫솔꽂이 같은 거 아닐까?  
크림           칫솔 꽂이?  
케이           화장실에 가면 칫솔 꽂이는 하난데 칫솔은 두 개가 들어 있잖아  
                  애기 태어나면 칫솔이 세 개 되고 애기 한명 더 태어나면 네 개..  
크림           그게 결혼이랑 무슨 상관?  
케이           가족이 되는 거지.. 한 집에 살면서 칫솔꽂이에 칫솔들처럼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  
                  맨날 같이 있어서 하나가 없어지는 걸 한번도 상상해보지 않는 거  
크림           그럼 난 벌써 결혼 한거네?

크림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으며  
크림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만지는 케이

크림           쉬 마려!

소파 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는 크림  
녹음기를 보고 있는 케이

## 55. 크림 방 (낮)

툭 툭..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노트북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고 써있고  
곡을 들으며 작업을 하고 있는 크림의 뒷모습  
커피를 들고 들어와 크림의 책상 옆에 놔주고 노트북을 보는 케이

케이           (크림의 머리를 아이 머리 쓰다듬듯 쓰다듬으며)  
                  그런 사람 좋겠다

케이를 보고 웃는 크림

## 56. 카페 (낮)

비가 내리는 창가에서 주환과 케이이 차를 마시고 있다  
케이의 마음을 표현 하듯 창에 흘러 내리는 빗물

케이                    크림과 제가 같은 집에 살았다는 게 신경이 쓰이신다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주환                    (머쓱한 미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람한테 잘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서 식사도 같이하고  
                              휴가도 같이 다니구 그러죠

케이                    (웃으며) 그러죠.. 잘 부탁드립니다

주환                    참..크림이 웨딩드레스를 강피디님과 고르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워낙 엉뚱한 사람이라서..

케이                    제가..왜..요?

주환                    유럽에선 아버지가 골라주고 그러잖아요  
                              저 대신 수고 좀 해 주세요  
                              (힘을 주며) 그리고 이게  
                              강피디님이 크림을 마지막으로 챙겨주는 일이었으면 좋겠구요

케이                    (힘없이) 그러죠..잘 부탁드립니다

주환                    별 말씀을..(단호하게) 이제 제 사람인데요

비 내리는 창밖에서 보여지는 케이와 주환의 모습  
(F.0)

## 57. 웨딩 샷 (낮)

(F.1)  
공주의 탈의실처럼 꾸며진 무대의 커튼이 열리면(고속촬영)  
웨딩드레스를 입은 크림이 보여진다  
케이의 눈에 비친 크림은 너무나 아름답다

크림                    어때?

흐뭇한 미소를 짓고 크림을 바라보는 케이

케이                    (환하게 웃으며) 예쁘다..  
매니저                우리 예비신부님은 목선이 뚜렷 하셔서  
                              이렇게 타이트한 디자인이 어울리실 꺼예요  
                              일단 입고 나와 보세요.. 자아.. 그럼 이번엔..

우리 예비신랑님 예복을..  
케이 아 저는요..  
크림 (걸려있는 턱시도를 가리키며) 이걸로 입어봐!

당황하는 케이와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웃고 있는 크림

컷투

공주의 탈의실처럼 꾸며진 무대의 커튼이 열리면  
웨딩드레스를 입은 크림과 턱시도를 입은 케이 가 나란히 서있다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케이와 크림  
찰칵, 플래로이드 사진기로 매니저가 두 사람을 찍고  
사진을 크림에게 건넨다

크림 (사진을 받으며)  
나가 있어봐! 더 강한 걸로 입어볼게

컷투

다시 커튼이 열리면 또 다른 디자인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크림  
케이가 앉아있던 소파에 아무도 없다

크림 어디 갔어요?  
매니저 화장실 다녀오신 됐어요, 정말 너무 예쁘시다

## 58. 화장실 (낮)

오바이트를 하는 케이  
고통스럽게 숨을 고르며 약병에서 약을 꺼내 수돗물로 먹는다  
숨을 고르며 세수를 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보는 케이  
보그 잡지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오는 남자  
소변기위에 보그 잡지를 올려놓고 불일을 본다  
보그 잡지 표지를 보면 여성 70% 가 선택한.....  
70 을 유심히 보고 있는 케이, 70 C.U

## 59. 제나의 작업실 (낮)

젖은 얼굴로 소파에 앉는 케이

제나가 케이의 잔에 차를 따라준다

제나            이제 케이는 뭐 할꺼예요  
케이            뭘..하다니요  
제나            크림 결혼한 다음.. 목적을 이룬 후에 계획 같은 거..

벽에 걸린 시계들을 하나씩 쳐다보는 케이

케이            이거요.. 한개만 시간이 가게하면 안될까요?  
제나            왜..?  
케이            그냥..  
제나            그냥?.. 그러시죠

제나가 시계를 하나 떼어내 건건지를 넣고 다시 벽에 걸면  
시계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 한다

케이            나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병원이 있는데요  
                  내일 크림 결혼식 끝나면 거기로 들어가려구요

말없이 시계를 보고 있는 케이  
케이를 바라보는 제나

제나            태워줄께요 결혼식 끝나면 나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께요  
케이            저어..번거로운 부탁 하나만 더 드려야겠는데..  
제나            언제든! (당황하며)..미안해요..뭐든지  
케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결혼기념일 날 꽃을 좀..보내야 될꺼 같아서  
                  갑자기 연락이 안되면..

시계를 보고 있는 케이를 바라보는 제나의 표정에 묘한 연민이 느껴진다

## 60. 집 (밤)

주방에서 요리책을 보며 음식을 준비 하고 있는 크림  
다양한 재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싱크대에 생닭을 징그럽다는 표정으로 냄비에 넣는다  
전화가 울리고, 보면, 배터리가 없다

크림            네..표가 있대요?  
주환 소리      그게 생기긴 했는데 항공사가  
크림            저기..지금 전화기 배터리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케이  
크림을 보고 반갑게 웃는다

케이                    뭐 만들..  
크림                    빨리 전화

케이의 가방에서 전화를 뺏다시피 꺼내고 번호를 누르고

크림                    저예요..

크림을 바라보는 케이의 얼굴이 굳어진다

크림                    네 배터리가 끊겨서..응.. 그렇게라도 좀..  
                             네.. 그럼 충전해 놓을 테니까 또 전화해요 네  
                             (그제서야 케이를 보며) 왔어.. 바쁘다 바빠..

주방으로 뛰어 가는 크림을 보는 케이  
냄비에 마늘을 넣는 크림  
케이의 전화가 울리고

크림                    (손에 든 전화를 보며) 전화 왔어...

케이, 크림에게 다가와 크림이 건네는 전화기를 받아 배터리를 빼버린다  
놀라는 크림

케이                    (화를 내며) 너 뭐야!  
크림                    (놀라며) 왜 그래  
케이                    (화가 많이 났다) 니가 원데 내 전화기를 함부로 써!

전화기를 거실에 집어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케이  
신경질 적으로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는 케이를 멍하니 바라보는 크림  
거실에 밧데리가 빠져있는 케이의 전화기

## 61. 제나의 작업실 (밤)

전화를 하고 있는 제나

소리                    고객님의 전화기가...

시계를 보고 책상위의 차키를 들고 나간다

## 62. 집 (밤)

식탁에 앉아 케이의 방문을 쳐다보고 있는 크림의 모습이 보여 지나가  
딩동.. 초인종이 울리면 뭐지 하는 표정으로 현관으로 가는 크림을 따라 가는 카메라

크림                    누구세요..

문을 열면 제나가 서있다  
마치 알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듯 크림을 보고 있는 제나

임제나                케이 집에 있나요?  
크림                    케이.....?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는 크림  
싸늘히 돌아서 케이 방 앞으로 간다

크림                    (방문을 두드리며) 나와 봐

제나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케이와 크림의 집  
케이, 방에서 나와 제나를 보고

케이                    (생각난 듯) 아아..미안해요

식탁에 앉아 있는 크림을 한번 쳐다보고는 제나와 함께 나가는 케이

## 63. 꽃가게 (밤)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의 여러 가지 꽃 들이 가득한 화원  
케이가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보고 있다  
그런 케이를 찍고 있는 제나

제나                    (카메라 앵글로 케이를 보며)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많이 궁금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딱 맞는 얼굴이던데요 크림  
사랑하고 싶게 생겼어..  
케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꽃의 향기를 맡으며) 좋은 사람이에요  
제나                    그럴겠죠.. 그러니까 케이 같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  
생각해 봤는데, 닥터 차.. 잘 고른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더군요

본인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크림을 혼자 있게 할리도 없고  
닥터 차도 케이 덕분에 저렇게 사랑스런 크림과 결혼하고..

케이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나는...

케이           미안해요

제나           그럴 것 없어요

                  덕분에 나는 사랑을 보았으니까

                  오히려 케이를 만나서 감사해요

케이           (예쁜 꽃이 핀 선인장을 가리키며) 이게 좋겠어요

제나           예쁘네..얼마동안..

꽃을 보며 생각에 잠긴 케이

케이           7년....

제나           결혼기념일 축하한다는 카드 같은 거라도  
                  같이 보내줄까요?

선인장 꽃잎을 만져보는 케이

케이           3년만..보내주세요

제나           (카메라를 내리며) 왜...요?

케이           빨리 잊혀져야죠

순간 눈물이 도는 제나 카메라로 눈을 가린다

## 64. 집 (밤)

식탁에 앉아있는 크림의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

식탁에는 두 그릇의 닭죽이 차려져있다

크림, 시계를 보면 열시 삼십분

한숨을 내 쉬고 닭죽을 쓰레기통에 신경질적으로 버리는 크림

화장실로 들어가고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화장실 문틈에서 카메라 이동하면

잠시 후 현관으로 케이가 들어오고 방으로 들어 가는게 보여진다

## 65. 케이 방 (밤)

화장실 문 닫는 소리가 들리고  
크림에게 문자를 보내는 케이

케이 문자                    아까 괜히 화내서 미안해  
  내일 예뻐야 되니까 꼭 자..좋은 꿈꾸고

잠시 후 Ding Dong

전화기를 보면 크림의 문자

크림문자                    밥 먹었어?

## 66. 식탁 (밤)

식탁에 마주 앉은 케이와 크림

케이                    잘 먹을게

크림 대꾸 없이 전화기를 만지면 Ding Dong.. 케이에게 오는 문자

크림의 문자            너랑 말 안 해!

케이 웃으며 답장을 보낸다

케이의 문자            미안해

서로를 바라보며 문자를 날리는 케이와 크림

크림의 문자            뭐가...?  
케이의 문자            그냥 다  
크림의 문자            내가 미안해  
케이의 문자            뭐가?  
크림의 문자            그냥 다

케이가 크림을 한번 쳐다보고 문자에 사랑해..라고 써놓고 지운다음 좋아해 라고 쓴다

케이의 문자            좋아해  
크림의 문자            나두..

크림이 자기 그릇에 담긴 닭다리를 케이에게 준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크림과 케이의 모습에서 카메라 서서히 빠진다

## 67. 결혼식장 (낮)

마치 아이가 치는 듯 손가락 한 개로만 치는 결혼 행진곡이 들려온다  
식장을 걸어 들어가는 주환  
크림과 케이가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간다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케이와 크림  
케이, 주환에게 크림의 손을 건네주고 돌아선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렸던 손가락 하나로만 치는 결혼 행진곡이 묘한 슬픔을 전달한다  
케이 돌아보면  
주환의 손을 잡고 주례에게 걸어가는 크림  
편안한 미소의 케이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눈물이 흐른다  
(F.1)

## 68. 카페 (밤)

(F.1)  
모닥불에서 날리는 불빛들이 마치 반딧불처럼 하늘에 흩날리고  
말없이 그 불빛들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는 세 사람  
하늘을 올려다보는 민철의 슬퍼 보이는 얼굴

임사장       (씨디를 보며) 얘기 참 썩네..  
가수 A        그 노래 한번 더 들어보고 올게..씨디 좀 줘봐

임사장에게 씨디를 받아 카페 앞 차로 걸어가는 가수 A

임사장       살다 살다 참..대단하네..강피디  
              근데에..연락할 방법좀 없을까? 그 치과의사 한테라도..  
민철         (가우똥) 우리 사장님이 그 뒤로도 일 때문에 몇 번 연락했는데  
              도통 연락이 안된다 라고 하던데요..  
임사장       어디 갔을까..작사 때문에 꼭 연락 해야 되는데..

모닥불을 바라보는 임사장과 민철

## 69. 제나의 작업실 (밤)

시계가 걸려있는 맞은편 벽 밑에  
 액자에 들어가 있는 케이의 사진(제나가 찍었던 사진)이 보이고  
 사진 밑에 #62 에서 케이가 제나에게 부탁 했던 것과 똑같은  
 선인장 화분이 네 개가 놓여있다  
 화분 밑에서 놀고있는 검은 색 고양이 한마리  
 “땡땡” 소리에 잠시 후  
 작업실 안 암실 문이 열리고 암실에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4년의 지나간 시간을 말해주는 분위기) 제나가 나온다  
 문을 열면 택배기사가 #62의 화분을 들고 있다  
 택배기사에게 받은 화분을 케이의 사진 밑에 놓는 제나  
 이제 화분은 다섯 개  
 다섯 개의 화분에 옆에서 놀고있는 고양이를 한번 쓰다듬고  
 케이의 사진을 한번 쳐다본 후 암실로 들어가는 제나  
 잠시 후  
 벽시계들 중 케이의 부탁으로 제나가 건전지를 넣은 시계가 탁 멈춘다  
 모든 벽시계가 멈춰있다  
 그리고 잠시 후 케이의 부탁으로 건전지를 넣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

## 70. 집 (낮)

잠옷바지와 헐렁한 티셔츠 차림으로  
 방 침대에 누워 리모콘으로 가사가 없는 곡의 한 구절(#9. 켓걸 노래)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크림  
 침대 위 노트북에는 내용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다

케이 소리	밥 먹어
크림	무슨 반찬?
케이 소리	개구리 반찬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는 크림

컷투

다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는 크림  
 한숨을 쉬며 일어나 곡을 듣다  
 노트북에 자판을 아무거나 신경질적으로 누르다

케이소리	나 늦어서 그냥 나가니까 점심 챙겨먹어
크림	알았어!

머리를 쥐어뜯고 음악을 꺼버리는 크림  
한숨을 쉬고 고개를 푹 숙이던 크림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씨익 웃는다

## 71. 케이 방 (낮)

책상 서랍에서 약병을 꺼내며 웃는 크림

케이소리           머리가 좋아지는 비타민 에이비씨야

약통에서 약을 한알 꺼내 삼키려다 한 알 더 꺼내 두 알을 삼키는 크림

컷투

케이의 방이 흔들리고 배시시 웃는 크림  
눈이 술 취한 사람처럼 풀려있고  
배시시 웃다 침대로 푹 쓰러진다  
(F.0)

## 72. 진료실 (낮)

(F.1)

심각한 표정으로 크림을 바라보는 의사

의사	이 약 어디서 샀어요
크림	제 친구 약인데..요
의사	그 친구가 이 약을 언제부터 복용했죠..
크림	왜..요
의사	이정도 약이면 증상이 꽤 심각했을 텐데..
크림	네? 무슨은..?
의사	이건 암이나 백혈병 환자들이 복용하는 진통제입니다 그것도 말기환자들..

크림의 시각으로 흔들리는 의사의 모습  
의사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모습이 점점 흐릿하게 보인다

의사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더 손을 써볼 도리가 없는 환자들...

(F.0)

## 73. 집 (밤)

(F.1)

문을 열고 들어오는 케이

집안이 암흑처럼 컴컴하고 크림의 울음소리만 들린다

크림의 소리 쪽으로 가면 달빛에 비친 거실 소파에 엎드려 울고 있는 크림

고개를 들어 케이를 바라보며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다

더 서럽게 울고 있다

케이                   (놀라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케이에게 와락 안겨 케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크림

케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더 슬피 통곡하듯 운다

크림을 안고 등을 다독이며 안정을 시키는 케이

크림 나레이션

**비타민 에이비씨의 정체를 안 순간**

**비타민 에이비씨의 정체를 이제야 안 병신 같은 그 순간**

**저승사자처럼 또박 또박 얘기하는 의사의 얼굴이 보이지 않던 그 순간**

**난.... 케이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 74. KFC (낮)

크림 나레이션

**케이를 처음 만난 건 엄마와 아빠와 지민이가 떠난 일년 후 어느 날**

가족 단위로 즐겁게 먹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혼자 비스킷을 먹고 있는 크림이

옆 테이블의 케이와 엄마로 보이는 여자의 대화를 듣는다

엄마                   (두개의 통장을 테이블에 올려 놓으며)

이 돈이면 니가 커서 직장 다닐 때까지 충분 할 꺼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케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엄마

고개를 숙인 채 엄마 손을 잡는 케이

케이 (눈물을 참으며) ...  
엄마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모질게) 철규야..

고개를 숙인 케이를 보고 눈물이 그렁이는 엄마  
결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 쉬고는 케이의 손을 자신의 손에서 떼어내고는  
KFC문을 열고 나가는 엄마  
엄마가 도로 앞 차에 오르자 차가 출발하고  
이내 고개를 숙여버리고 흐느끼는 케이  
그런 케이를 바라보며 우는 크림

크림 나레이션

**케이는 나보다 더 슬퍼보였습니다  
나보다 더 아파보였고  
나보다 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F.0)

## 75. 집 (저녁)

(F.1)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케이와  
식탁에 앉아 케이를 바라보는 크림

크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케이 (찌게 간을 보며) 무슨 말..  
크림 뭐.. 가슴속에 꼭 숨겨둔 말..  
예를 들면 성당에서 하는 고해성사 같은 거  
오늘은 이 누나가 신부님 할 테니까  
케이 가슴속에 있는 말..있어  
크림 기탄없이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케이 좋아해

크림 나레이션

**난 케이랑 같이 있어야됩니다  
그건 케이..나보다 더 잘 알고있습니다  
케이랑 같이 있지 못하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케이..나보다 더 잘 알고있습니다**

크림           그건 당근 뺏다 고오.. 뭐 다른 거 없어  
케이           없는데.. 맛있다 먹자..  
크림           (심각한 표정) 난 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말없이 케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크림

케이           왜.. 뭐 필요한거 있어..  
크림           (한숨을 쉬며) 니 소원은 뭐야  
케이           (반찬을 올려놓으며) 내 소원?.. 느닷없이 웬?  
크림           느닷없이 궁금하네.. 니 소원이?  
                  대답해봐 이 세상에 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케이           니가 행복해지는 거

크림 나레이션

**사전에서는 행복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적혀있었고  
난 케이와 있을때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낍니다**

크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건데?  
케이           일단 수저를 들어  
크림           (수저를 들고) 그리고..?  
케이           그리고 밥을 맛있게 많이 먹어  
크림           (밥을 먹으며) 그리고?  
케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크림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잔데?  
케이           건강하고 착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남자

크림 나레이션

**하지만 난 케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 76. 방송실 (낮)

스튜디오 안에서 디제이가 청취자 엽서를 읽고 있고 크림이 옆에 앉아있다  
케이가 씨디 여러 장을 들고 스튜디오로 들어온다  
케이를 바라보는 크림

디제이            사람이 사람을 보고 가슴이 떨려 올 수 있는 건  
                      인생에 단 한번 뿐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심장이 하나뿐이고  
                      난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씨디를 책상에 내려놓는 케이를 바라보는 크림

디제이            사랑은..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  
                      그래서 난 몰래 지켜보며 가슴 졸이기보다는  
                      지켜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 하는 걸 바라보기로 했다  
                      미쳤다고! 당연하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해..  
                      아이디 인어공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파해보신 분 같죠?  
                      크림씨 생각은 어떠세요? 크림씨..

디제이의 말을 듣지 못하고 케이를 보고 울고있는 크림  
당황스러운 디제이 얼굴

## 77. 대기실 (낮)

작가 두 명과 크림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대기실 앞으로 걸어가는 주환

작가2            못 먹는 감 지나간다  
작가1            (주환을 바라보며) 재는 하느님 핸드메이드야..  
                      얼마 전엔 조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잘생겼지, 능력있지, 매너 좋지, 게다가 가정적이기까지...  
                      저 남자는 다 갖췄는데, 왜 선보러 나오는 남자들은  
                      도대체가 단 하나도 못 갖추는 거니!!!  
작가2            언니 이제 선 안 본다며 또 봤어?  
작가1            시끄러... (시계를 보며) 고럼 난 핸드메이드 구경하러 간다

작가 1 대기실을 나가면

케이소리        착하고 건강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남자

컷투

크림 나레이션

이 남자면 괜찮을까요..  
이 남자면 안심할까요..  
이 남자면..편하게..보내줄수 있을까요.

(F.0)

## 78. 대기실 (낮)

(F.1)

대기실에서 주환을 유심히 바라보는 크림  
주환, 크림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보인다

크림                   (커피를 마시려다) 어디로 마셨어요  
주환                   네?  
크림                   이입..어디다 됐냐구요?

## 79. 와인 바 (밤)

와인을 마시고 있는 주환과 크림  
크림이 취해있다

크림                   돌맹이의 마음을 알아요  
점점 물속으로 빠져드는데 이걸 누군가 꺼내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강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  
하지만 누가 강물 바닥에 깔려있는 돌맹이를 꺼내주겠어요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지..

주환을 쳐다보는 크림의 눈이 매혹적이다

크림                   지금 내 마음처럼...

한참동안 크림을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연다

주환                   (와인을 한모금 마시고) 약혼했어요 저

멍하니 주환을 바라보던 크림이 갑자기 웃기 시작한다  
당황하는 주환

크림                      깔깔깔깔!

크림 나레이션

누가 당신이 약혼했는지.. 결혼했는지.. 애가 있는지 궁금하데요  
당신은 그냥 날 만나기만 하면 되  
케이를 위해서..  
못된 년이라구요.. 난 지금 못된 년 착한 년 따져볼 겨를이 없어요  
내 사랑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거든..

## 80. 케이 방 (밤)

뒤에서 케이를 안고 눈을 감는 크림  
잠시 후 케이가 베개를 들고 일어나 방에서 나간다  
케이가 방에서 나가자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귀에 대고 듣는 크림

케이소리	무슨 얘기 할라 그랬지?
크림소리	다시 태어난다면?
케이소리	다시 태어난다면..음..반지? 안경..침대..일기장.. 안 죽고 영원히 사는거
크림소리	그딴걸로 영원히 살면 뭐하니? 재미없게!
케이소리	(웃으며) 니가 날 사 면 되잖아 니 옆에 있으면 심심할 시간 있겠니?

침대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크림의 들썩이는 어깨  
(F.0)

## 81. 거실 (낮)

(F.1)  
크림 옆에 더플코트를 내려놓는 케이

케이                      나 먼저 나갈게 입고 나가

통명스럽게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여는 케이

크림소리           (짜증스럽게) 야..니가 내 코디네이터야  
나두 옷 잘 입어

케이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크림

## 82. 거리 (낮)

#28에서 케이가 걸었던 그 거리를 케이와 걷고 있는 크림  
여러대의 실로폰과 팬 플룻으로 연주되는 단조의 동요 같은 음악이 들린다  
케이가 입혀준 옷을 입고 케이처럼 울면서  
케이가 걸었던 그 거리를 그대로 걷는 크림의 모습이  
여러대의 실로폰과 팬 플룻의 연주와 어우러져 슬퍼 보인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걸지만  
크림은 멍하니 깜박이는 파란 불을 바라만 보고있다

## 83. 횃집 (밤)

사랑에 빠진 미운 오리들 스텝과 교통방송 스텝이 회식을 하고 있다

최피디           (건배를 청하며) 자자.. 우리 옆방 이웃들끼리 한잔 하자구  
잔들 들어

모두 잔을 들면 건배를 외치며 즐겁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

크림           저... 먼저 일어 날게요  
주환           (아쉬운 듯) 그러실래요..그럼 내일 병원에서 봐요  
크림           그래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크림

크림의 나레이션

**시간이 자꾸 흘러버려서 큰일입니다**

## 84. 집 (밤)

케이와 크림이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다

크림                    넌 왜 밥 안 먹고 라면질이니?  
케이                    혼자 차려먹기도 뭐해서

라면 한 그릇에 젓가락 두 개가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머그 잔 하나로 번갈아 물을 마시는 케이와 크림  
다정한 부부 같아 보인다

크림의 나레이션

식탁에 앉아 케이와 함께 라면을 먹으며  
죽지마 이 나쁜새끼야.. 라는 말을 물 한잔과 삼키며  
제발 나한테 얘기해  
내가 안아줄게.. 내가 같이 죽어줄게..  
니가 이때까지 잘해준 거 너 따라가서 내가 다 갚아줄게  
라는 말을 다시 물 한잔과 삼키며  
나는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 85. 화장실 (밤)

심하게 구토를 하는 케이  
화장실 앞에서 케이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던 크림이 화장실 문을 닫아버린다

크림                    (울면서 소리친다) 이기지도 못할 술을 왜 그렇게 쳐 먹고 다녀!  
                          더러우니까 문 닫고 오바이트 해

벽이 화면의 가운데를 가르고 보이는 케이와 크림

크림의 나레이션

**서둘러야 겠습니다**

## 86. 치과 (밤)

불 꺼진 치과, 원장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주환  
똑똑..

돌아보면 크림이 주환을 보고 있다  
당황하며 마우스로 쓰던 창을 닫는 주환

크림이 다짜고짜 주환에게 달려들어 키스 한다  
당황하더니 키스를 받아들이는 주환  
서로를 어루만지며 키스하는 주환과 크림

크림                   (뜨거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주환에게)  
우리 빨리 결혼하면 안돼요?

거친 숨을 몰아쉬던 주환이 다시 크림에게 뜨겁게 키스한다  
(F.0)

## 87. 집 (밤)

(F.1)  
소파에서 크림이 케이의 다리를 베고 누워 음악을 듣고 있다

케이                   한 집에 살면서 찻숟가락에 찻숟가락처럼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  
                          맨날 같이 있어서 하나가 없어지는 걸 한번도 상상해보지 않는 거  
크림                   그럼 난 벌써 결혼 한거네?

크림을 내려다보며 웃으며  
크림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만지는 케이  
크림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크림                   쉬 마려!

소파 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는 크림

## 88. 화장실 (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샤워기를 틀고  
바닥에 앉아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는 크림

## 89. 웨딩 샷 (낮)

찰칵, 플라로이드 사진기로 매니저가 두 사람을 찍고  
사진을 크림에게 건넨다

크림 (눈물을 글썽이며) 나가 있어봐! 더 강한 걸로 입어볼게

케이가 나가면 도우미가 커튼을 닫는다

매니저 (커튼을 닫으며) 두 분 웨딩 모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사진을 들고 주저앉아 우는 크림  
놀란 도우미 아가씨가 커튼을 닫고 나간다  
카메라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화장실 벽에 기대 앉아 울고 있는 케이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기대어 울고 있는 케이와 크림

## 90. 결혼식 장 (낮)

오카리나 하나로 연주되는 결혼행진곡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케이와 크림  
케이, 주환에게 크림의 손을 건네주고 돌아선다  
주환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걸어가던 크림이 케이를 돌아보면  
웃고 있는 케이..크림도 웃는다  
다시 고개를 돌리고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는 크림이 눈물을 흘리고  
#66 결혼식장에서 돌아서며 눈물을 흘리던 케이와 크림이 교차되어 보여진다  
슬프게 들려오는 오카리나로 연주되는 결혼행진곡  
(F.0)

## 91. 카페 앞 (새벽)

(F.1)

가수A와 임 사장과 민철이 로드 매니저가 시동을 걸어놓은 차로 걸어온다

임사장	서울 오면 연락해 쏘주 한잔 살게
민철	주무시고 가시죠..피곤하실텐데
가수A	시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해요..사장님
민철	저두 오랜만에 옛날 생각하면서 좋았어요
임사장	자자 들어가자구..연락할게

가수A와 임 사장이 차에 오른다  
인사하는 민철

## 92. 가수A의 차안 (동)

지방 도로를 달리는 차안

가수A	녹음 하자 형..
임사장	녹음 하실라구? 오케이, 상일이형 스케줄 잡을께!
가수A	그 곡 말구..그 노래..
임사장	아아 그거..그래! 하긴..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 여잔 진짜 어디 갔을까?
가수A	그 노래한번 들어봐..들어봐 형..들어보면 알꺼야

로드 매니저가 노래를 듣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가 차량 스피커로 들려온다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 임사장과 가수 A

## 93. 도로 앞 남골당 (아침)

가수A의 차가 지방의 아름다운 배경으로 지나다니다  
어느 남골당 앞을 지나가고  
남골당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의 뒷모습

## 94. 남골당 안 (아침)

남골함들 중 한 남골함 앞에 남자  
보면 차주환이다  
주머니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내 바라본다  
보면 #89의 크림과 케이의 웨딩사진  
사진을 바라보는 주환의 눈으로 카메라 zoom해서  
눈동자 속으로 카메라가 들어가면

## 95. 방송국 스튜디오 앞 복도 (낮)

이제부터 #98 까지는 주환의 시선으로만 보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시선이  
케이와 크림이 스튜디오 안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춘다  
누가 봐도 사랑하는 사이인걸 알 수 있는 모습



카메라 사진에서 뒤로 빠지면 납골당 안  
 케이와 크림의 웨딩 사진을 크림의 납골함에 붙여주는 주환  
 주환의 손에 타이틀 시퀀스에서 본 반지가 끼어져있다  
 주머니 속에서 크림의 소형 녹음기를 꺼내  
 납골함 옆 다이에 올려두고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사진 속 크림의 얼굴을 쓰다듬어 보고는 뒤돌아 걸어 나오는 주환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케이와 크림의 대화

케이 소리	라면 끓일건데..먹어?
크림 소리	아니! 작업해야되
케이 소리	진짜 안 먹지?
크림 소리	작업한다니까
케이 소리	그럼 하나만 끓인다
크림 소리	응..
케이 소리	젓가락만 들고와봐!
크림 소리	야!
케이 소리	왜?
크림 소리	계란은 왜 넣어! 이리줘봐!
	(뜨거운 라면 먹는 소리) 라면은 누가 만들었을까?
케이 소리	안 먹는다며
크림 소리	그러니까..밥있나?
케이 소리	기다려봐..일려논거 있을꺼야
크림 소리	너 담배랑ライター랑 사랑에 빠진 얘기 들어봤어
케이 소리	또 니가 지어낸거지
크림 소리	아니거든
케이 소리	담배랑ライター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냐?
크림 소리	문학적 접근방식을 몰라요 음악 방송 프로그램 프로듀서가
케이 소리	해봐 그럼..
크림 소리	이거 좀 먹고..(라면 국물 마시는 소리)
케이 소리	두 개 끓인다니까..진짜
크림 소리	(물 마시는 소리) 담배랑ライター랑 사랑에 빠진거야 어느날
케이 소리	그랬을꺼야
크림 소리	너 듣는 태도가 많이 불량하다
케이 소리	알았어, 알았어..그러던 어느 날!
크림 소리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케이 소리	(웃으며)그만 좀 먹어
크림 소리	치사하게! 너 다 먹어
케이 소리	야! 다 먹었잖아

킬킬 거리며 웃는 크림을 따라 웃는 케이의 웃음소리